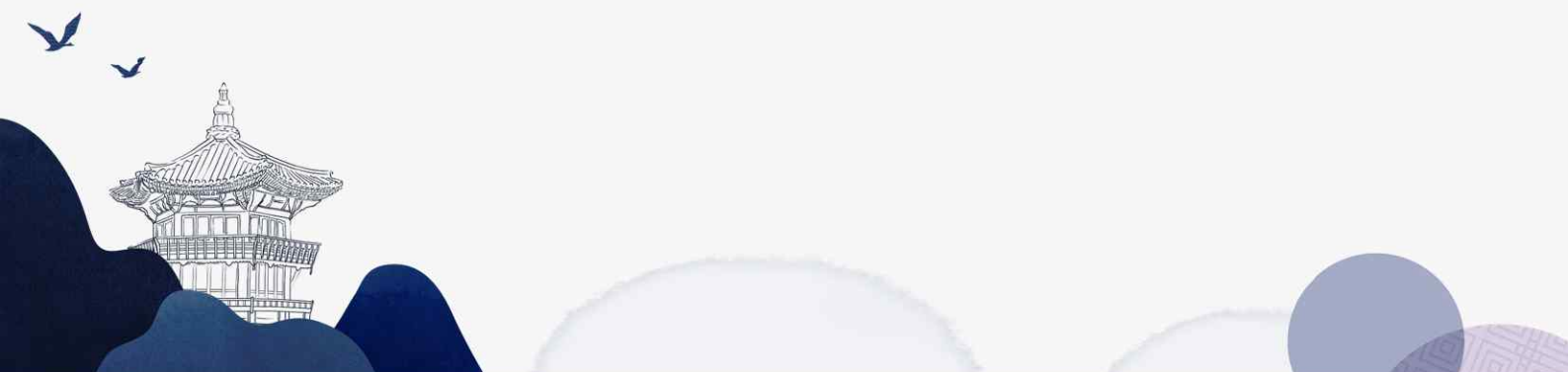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9
4	讲义	59
5	퀴즈	81
6	토론	84
7	자료	86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은 한국의 고전 가운데 6종의 문헌을 선정하여 저술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고급 교양 강좌이다. 6종의 고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헌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헌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도록 기획하였다. 각각의 문헌마다 2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각기 고전의 저자, 저술 배경, 의의 등을 소개하는 '이해'와 고전의 본문을 강독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읽기'로 구성된다. 6종의 문헌을 다룬 강의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수강생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일부 문헌만 학습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2

학습목표

- (1) 한국 고전의 이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2) 한국 고전의 감상을 통해 고전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기록문화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얻는다.
- (3) 한국의 고전을 매개로 삼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및 출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는 한국의 고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내용과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6종의 고전 가운데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헌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교양을 얻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문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강좌에서는 《양화소록》, 《경민편》, 《연병지남》, 《한경지략》, 《만국사물기원역사》, 《한국통사》의 6종의 고전을 각기 2주씩 강의한다. 이들 고전은 화훼 재배와 감상, 백성의 교화, 병법, 풍속과 문화, 백과사전적 지식,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이 그 저술 배경과 저자 등에 대한 지식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감상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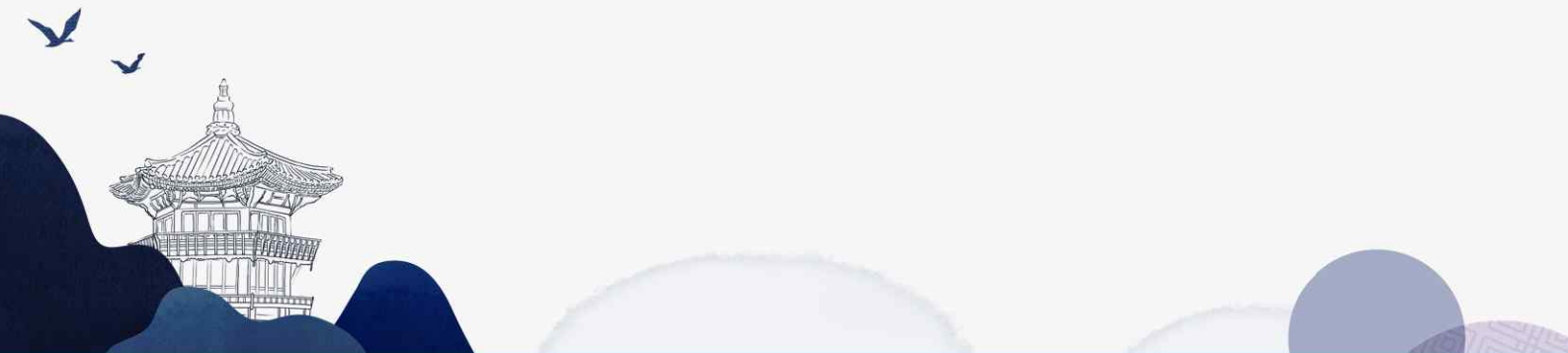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주차별 구성

1주차	《양화소록》의 이해
2주차	《양화소록》 읽기
3주차	《경민편》의 이해
4주차	《경민편》 읽기
5주차	《연병지남》의 이해
6주차	《연병지남》 읽기
7주차	《한경지략》의 이해
8주차	《한경지략》 읽기
9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10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
11주차	《韓國痛史》의 이해
12주차	《韓國痛史》 읽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8

주차

《한경지략》 읽기

8-1

유본예가 사랑한 규장각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에서 『한경지략』의 강의를 맡은 장지연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덟 번째 강의로 '한경지략 읽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지난 강의 '한경지략의 이해' 후속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한경지략』의 전반적인 특징과 저자인 유본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완성된 이후 19세기 『한경지략』이 나올 때까지 한양을 단독으로 다룬 지리지지는 없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대체로 조선 전기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한경지략』은 조선 후기 변화된 한양의 모습을 담고 있는 지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한 세대 정도 후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며 한양은 또다시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변화가 시작되기 전 조선 후기의 한양의 모습을 담은 지리지라는 점에서 이 책이 갖는 의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비록 지리지라는 건조한 형식을 지니고 있으나, 유본예의 개성이 많이 담겨 있었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개성을, 서얼 집안 출신이지만 아버지 유득공을 비롯하여 규장각 검서관을 역임했고,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왔다는 서울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사대부와의 동류의식 등으로 정리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아버지 유득공, 박제가, 박지원 등의 교유 관계가 반영되었으며, 노론 명문인 장동 김문 관련 장소가 많이 들어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유본예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기본으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만, 그 형식은 해체하여 자기 나름으로 구성했으며, 조선 후기에 변화된 정보들은 18세기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를 중심으로 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각종 야사와 서울 사람인 자신만 알 수 있는 견문 등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있었던 시문은 거의 생략했지만, 그렇다고 호구나 물산 같은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책이 실용적인 목적의 지리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 역시 인문교화적 지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대부와 동류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저자의 개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편 이 책에서는 한양의 여러 장소를 표현하며 상당히 묘사적으로 서술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은 당대 유행한 「성시전도시」, 「성시전도」 등과 일치하는 특징이라고도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의 부분 부분을 읽으며 실제 서술에서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경지략』의 목차와 구성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항목 중 오늘날에는 약간 낯선 용어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천문은 한양이 별자리로는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되는지, 북극고도는 얼마인지 등을 밝힌 부분입니다. 쉽게 비유해서 오늘날 한양의 경위도값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형승은 요즘 말로 하면 지세라고 할 수 있고, 궁궐은 경복궁, 창덕궁 등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궁궐입니다. 이에 비해 궁실은 국가에서 지은 공적 공간입니다. 즉 태평관 같은 외교 공간이라든가 한강 변의 여러 정자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정자 같은 공간은 유흥공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정자는 유흥공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임금의 행차나 사신의 유람 등 공적 목적을 위해 건설됐다는 점에서 공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단유는 사직단처럼 단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제사처이고, 사묘는 건물 형태의 사당을 갖춘 제사처입니다. 묘전궁은 종묘를 비롯한 왕실 사당을 서술한 항목입니다. 묘가 가장 위계가 높고, 그 다음이 전, 그다음이 궁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이런 이름에 다 위계가 있습니다.

원유는 궁궐 후원을 말합니다. 궐내 각사는 궁궐 안의 여러 관서, 궐외 각사는 궁궐 밖에 위치한 여러 관서를 뜻합니다. 의정부, 육조 이런 관서를 말합니다. 역원은 역과 원, 즉 교통로 상의 주요 지점인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교량은 다리를 말하고, 산천은 삼각산, 인왕산, 사현, 한강 등등 주요 산과 고개, 강과 시내를 다룬 부분인데, 형승이 한양의 전반적인 지세를 설명하고 있다면 산천은 그 안에서 언급할 만한 산천을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명승은 경치 좋고 놀기 좋은 곳이고, 각동은 한양 안의 여러 동에 대해서 서술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전은 육의전을 비롯한 수도 내의 각종 시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편목 아래에는 항목이 있고, 그 아래 세부 항목이 있을 경우 동그라미를 붙여 구별하며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항목 마지막에 저자의 해설에 해당하는 안설을 ‘안’, 혹은 ‘근안’ 등의 문구와 함께 한 줄 내려 서술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서술 부분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평생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한 그의 이력과 자부심이 서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한경지략』에서는 규장각의 서술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 편목의 창덕궁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궐내 각사의 창덕궁 내 각사에도 서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기관을 궁궐 안의 전각으로도 설명하고 관서로도 설명한 셈입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규장각에 할애한 분량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창덕궁 항목의 마지막에 붙은 안설을 보면, 노란색 표시를 한 부분이 규장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대충 눈으로 어림잡아 봐도 안설의 삼분의 이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안설은 『규장각지』를 인용해서 규장각을 설치한 역사적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규장각 설치가 세조대 양성지의 건의에서부터 기원했을 정도로 유서가 깊은 논의였으나, 세조 대, 숙종 대에는 미처 규모나 제도를 갖추지 못하였다가, 정조대에 이르러 드디어 설치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곳에 소장된 『고금도서집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고금도서집성』은 청의 4대 황제인 강희제의 칙령으로 완성된 만 권 규모의 유서인데, 유서란 쉽게 얘기하자면 백과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중국의 유서 중 최대 규모의 책으로 정조가 은자 2,000냥이 넘는 돈을 주고 어렵게 구했습니다.



『한경지략』에서는 단지 이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정도의 언급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함으로 따지면 총 몇 함이나 있는지까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규장각의 팔경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정조대 처음으로 규장각을 설치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팔경은 역사가 참 짧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점에서 규장각에 대한 저자의 애정과 관심의 정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창덕궁에 대한 안설, 즉 저자의 해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규장각에 대한 서술은 지나치게 많다고도 평할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유본예에게 창덕궁은 규장각의 공간으로 인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내 각사 편목의 창덕궁내 각사에서도 규장각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영역인데, 규장각의 직원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직원은 각신이 근무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문원, 대유재, 소유재가 중심 건물인데, 『한경지략』은 기본적으로 시문은 실지 않고, 기문의 경우에는 저자와 제목만 쓴다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곳에 설치된 측우기와 종경가에 새겨진 글은 다 옮겼다는 점에서 규장각을 얼마나 비중 있게 서술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여러 전각 중 소유재는 검서관이 숙직했던 곳이라 유본예에게도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가 어떻게 서술했는지 보겠습니다.

소유재는 곧 선대 1795년 정조 19년 정월에 임금이 이문원에 임어하시고선,
검서관의 숙직소가 비좁다 하여 본각에서 재력을 마련해서 옛 청의 옆에 고쳐 짓게 하셨다.
검서관 박제가가 그 공역을 감독하여, 그해 9월에 완성하였다.
정면이 5칸, 측면이 2칸으로 판(板)으로 벽을 만들고 흙을 쓰지 않았다.
동쪽으로 금천에 임하여 누각을 만들고, 개울을 끌어들여 연못을 만들었다.
북악을 등지고 남산을 서쪽에 두었으며, 물가에 아름다운 난간이 있어 매우 풍경이 좋았다.
상이 임어하여 밤을 보내신 후 어재실로 삼으셨고 소유재라 이름 지었는데,
검서관에게 수직하게 하였으므로 마침내 검서관이 숙직하는 곳이 되었다.

검서관의 숙직에 대해 정조가 신경을 썼고, 임금이 직접 밤을 보내며 검서관이 수직하게 함으로써 전각의 격도 높여주었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검서관에 대한 정조의 특별한 대우를 기록한 것입니다.



정조대의 이야기가 아버지대의 기억이라면, 유본예가 직접 경험한 기억도 있습니다. 1826년 순조 26년에 효명세자가 대보단의 봄 제사를 위해 소유재에서 재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효명세자는 이곳에서 재숙을 하며 춘추를 읽는다는 제목으로 5언 8운 율시를 짓고, 이를 친히 써서 소유재 벽에 걸었는데, 지금은 이를 모각하여 걸어두었다고 이 규장각 항목의 안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현판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경지략』에는 시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현판이 남아 있어서 시의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봄날 보슬비 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춘추』를 읽으며 대보단 제사의 의미를 새기는 시입니다.

한편 이외에도 이곳에 근무한 적이 있는 저자의 견문으로만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본각(本閣)에 길들인 학 1쌍이 있었는데,
황해도 연안 땅에 관문을 보내어 들여온 것으로, 이문원 주방에 학의 사료가 있었다.
이문원 뜰에는 왜나무 한 쌍이 있었는데, 옛날 총관 이철보(李喆輔, 1691-1775)가 심은 것이다.

20년 전에 동편 한 그루가 말라 죽었는데,
내각제학 극옹 이만수가 그 자손이었기 때문에 어린 왜나무 한 그루를 보충하여 심었다.

이곳에서 키우던 학 이야기, 새로 나무를 심은 이야기 등은 이곳에서 오래 일한 저자의 견문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저자의 애정이 잘 드러납니다.

이상에서 저자 유본예와 그의 집안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던 규장각에 대한 『한경지략』의 서술을 살펴보았습니다.

규장각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는 분량도 많았고, 그 모습에 대한 설명도 정확하고 견문 내용도 많이 반영되어 매우 직접적이면서 자세합니다. 다른 기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규장각 일대를 묘사한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기록의 정확성이 높습니다. 이는 저자의 애정과 정보의 양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본예가 사랑한 규장각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 사람만 쓸 수 있는 미시적 정보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2 서울 사람만 쓸 수 있는 미시적 정보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유본예가 사랑한 규장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담은 규장각에 대한 정보가 분량의 측면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또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한지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사람만 쓸 수 있는 미시적 정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본예는 자신이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서울에 대한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경지략』에는 이런 미시적인 정보가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중에서도 서울의 물에 대해 서술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도성에는 백악, 인왕산, 남산, 낙산에서 흘러 내려온 작은 개울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울이 중앙의 개천, 즉 청계천에 모여 도성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16세기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도성 안의 여러 지천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나, 『한경지략』에서는 도성 안의 개울을 빠짐없이 수록했습니다.

서술의 순서는 청계천 기준으로 북부 지역의 개울 중 북악과 응봉에서 비롯한 지천을 서쪽부터 동쪽으로 상류에서 하류의 순서로 훑고, 남부, 즉 남산 자락의 지천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성 밖의 개울을 다루었는데, 인왕산과 무악에서 비롯한 지천과 도성 동쪽 하류의 살곶이다리까지 설명했습니다.

여러 지천과 함께 그 지천에 있는 다리도 모두 설명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다리 개수가 스무 개가 되지 않습니다. 영도교, 제반교, 청파신교, 경고교, 홍제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도성 안의 물길이고, 송첨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천 본류에 있었던 다리입니다.

그러나 『한경지략』에서는 지천의 다리를 모두 언급하고 있어서 그 갯수가 오십 개에 달합니다. 다리를 서술할 때에는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순서대로 서술을 했고, 제일 첫머리의 백운동천에서 개천의 다리를 거쳐 송파강까지 나가는 것을 서술했습니다. 괄호 속의 명칭은 그 다리의 별칭입니다. 유본예는 어떻게 이런 별칭이 붙었는지도 서술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의 백운동천의 신교는 하랑교라고도 했는데 예전에 하랑위가 이 다리 옆에 살아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한 지식은 서울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동네에 떠도는 속설이기에 부정확하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 다리 이름의 유래가 된 하랑위가 어떤 인물인지는 다른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경지략』의 이런 정보는 사실의 정확성보다는 19세기 당대 서울 사람이 갖고 있던 정보 정도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한경지략』의 다리에 대한 서술과 이 지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는 18세기를 살아간 위백규라는 인물이 그린 한양도입니다. 유본예보다 한 세대 앞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호남의 벽지에서 무명의 선비로 거의 전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생각한 한양은 성곽과 경복궁, 창덕궁과 창경궁, 경희궁 등 궁궐과 성균관 및 문묘, 시전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도성 안의 물길이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산에서 발원해서 개천으로 내려오는 개울은 하나도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리는 시전과 개천이 만나는 곳에 있는 광통교 하나만 표시되었을 뿐 나머지 수많은 다리는 전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도 없고, 오부만 표시되었을 뿐 그 아래 하부 행정구역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관심 분야가 성곽, 궁궐이나 시전행랑 같은 수도 한양의 인상적인 건조물 몇 가지와 아마도 사대부 출신이라는 데서 기원했을 성균관에 대한 관심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거기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자세한 표현이 불가능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이에 비할 때 유본예는 서울 다리 이름만 대라고 해도 오십 개가 넘게 댈 수 있고, 그 별칭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미시적인 지식이 잘 드러나는 또 하나의 부분으로는 우물과 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문헌비고』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우물 설명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정은 돈의문 밖에 있다. 물의 품질이 매우 훌륭하지만, 훈련원의 통정이 있어서 2위이다. 물이 넘쳐 길게 흐르지만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므로 민간에서 초리정이라고 한다. 초리란 우리 말로 꼬리를 말한다. 우물이 흘러 꼬리가 있으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물맛이 달고 깨끗해서 염색하는 데 적당하여 쪽 염색하는 집들이 그 옆에 많이 산다.



물맛에 대한 품평, 그 특징의 설명, 우물 이름의 유래와 같은 이런 내용은 서울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서술일 것입니다. 초리우물에 대해서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18세기 전반을 산 이운영이란 사람이 지은 우리말 가사입니다.

우리는 백룡이라 서쪽을 주관하리.

반송방 늦점 경계 팔각정 내린 맥에 돌개구멍 점지하여

삼백 년에 걸쳐 있어 꼬리를 한 번 치면 맛 좋은 물 솟아나니

이러므로 세상에서 말하기를 초리우물

여기에서는 초리우물의 꼬리라는 말을 도성의 서쪽을 지키는 백룡이 꼬리를 쳐서 우물을 만든 것으로 연상하고 있습니다. 초리우물 이름의 유래에 대해 다르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운영이란 사람이 그것을 소재로 이렇게 가사 한 편을 지을 정도로 한양에서 상당히 유명한 우물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약천에 대한 서술도 흥미롭습니다. 도성 주변의 샘 중 약효가 있다 해서 인기가 있던 돈의문 밖의 약천과 창의문 밖 옥천암 두 곳을 『한경지략』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천은 돈의문 밖 모화관 서쪽에 있다. 산골짜기 사이에 바위가 있는데, 악암(惡岩)이라고 한다. 틈새로 가는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배앓이와 설사하는 사람이 실컷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매년 여름철이면 표주박을 가지고 와서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다 대줄 수가 없다.

또 창의문 밖 한북문 옆에는 옥천암(玉泉庵)이라는 절이 있는데, 암벽 사이에서 샘물이 나온다.

풍병, 체증이 있는 사람들이 마시면 신호하며, 눈병도 씻어내면 낫는다고 한다.

옥천암의 불상은 바위 언덕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해수관음(海水觀音)이라고 한다.

약천이 근처에 있으므로 서울 사람들 중 샘물을 마시려는 사람들은

많이들 절에 가서 물을 계속 먹게 할 짬 음식을 먼저 먹은 연후에,

종일토록 마셔서 배가 불러야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약천의 물을 많이 먹기 위해 절에 가서 짬 음식을 먼저 먹었다는 얘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옥천암의 바위 언덕을 깎아 만들었다는 해수관음은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5m가 넘는 고려 후기의 마애보살상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유본예의 세세한 지식이 『한경지략』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해보았습니다. 서울 안의 크고 작은 다리를 다 나열하고 그 별칭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물 맛을 품평하고 인기도를 측정할 만큼 그의 지식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서울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그가 꿈은 서울의 명승이 어디였는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8-3 서울의 명승은 어디였는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양의 다리와 우물 편목을 통해서 유본예의 세세한 지식이 『한경지략』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꼽은 서울의 명승이 어디였는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 편목은 각동 편목과 함께 『한경지략』에만 있는 편목입니다. 명승이라고는 했지만 단지 경치만 아름다운 곳이 아니고, 유명 인물의 행적이 남은 장소가 많아서 각동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명승은 사람들이 구경하거나 노니는 곳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꼽은 서울의 명승은 어떤 곳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경지략』에 수록된 명승의 위치를 구분해 보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총 19개소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 성안이 13개소, 성밖이 6개소여서 성안의 비중이 높습니다. 성안의 명승을 보면 경복궁 주변이 아홉 곳이어서 압도적으로 많고, 동쪽 지역과 남산 쪽은 각각 두 곳에 불과합니다.

성(城) 밖의 명승은 남산, 혜화문 밖, 창의문 밖, 돈의문 밖, 한강 등으로 한두 곳씩 수록이 되어 있어서 골고루 분포하는 편입니다. 이는 조선 전기와 많이 달라진 것인데, 조선 전기의 명승지 대부분은 도성 밖에 있으면서 한강 변이나 남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15세기 성현이 지은 『용재총화』에서는 백악 자락, 인왕산 자락, 남산 청학동 등이 경치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도성 안에는 경치 좋은 곳이 적다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한경지략』의 시대에는 압도적으로 성(城) 안, 그중에서도 백악 자락의 경복궁 주변이 명승으로 꼽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보입니다.

15세기에는 아직 성(城) 안의 풍경은 즐길 만한 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했던 것에 비해, 조선 후기에는 도성 안의 여러 지역도 미세하게 구분이 되면서 노니는 장소가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승지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합니다.



『한경지략』에 수록되어 있는 항목을 자세히 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경복궁 주변에 필운대, 도화동, 유란동, 화개동, 세심대, 수성동, 옥류동, 백련봉, 몽담정 등 아홉 곳, 성안 동쪽에 송동, 협간정 등 두 곳, 성안 남산 자락에 쌍회정, 천우각 등 두 곳이 있습니다.

경복궁 주변 지역에서도 인왕산 자락에 필운대, 세심대, 수성동, 옥류동, 북악 자락에 도화동, 유란동, 백련봉, 창덕궁 서쪽에 화개동, 몽담정을 꼽아서 인왕산 자락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성밖으로는 동북쪽 혜화문 밖에 복사동, 남산 바깥 자락의 산단, 서북쪽 창의문 밖의 세검정, 서쪽 돈의문 밖의 천연정 등을 꼽았고, 한강 부근에서는 읍청루와 창회정을 꼽았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이 이렇게 대거 명승에 들어간 것에 비해, 조선 전기에 명승으로 꼽았던 곳은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산의 경우에는 남산팔영이라 하여 남산만을 소재로 한 팔경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경지략』에는 남산 쪽의 명승은 성안과 성밖을 합쳐도 세 개밖에 안 됩니다.

한양 북촌의 이 지역들은 장동의 안동 김문과 관련이 깊은 사적입니다. 19세기 세도 가문으로 널리 알려진 바로 그 가문입니다. 이곳은 이 가문과 교유가 깊었던 18세기 이병연의 시와 정선의 그림이 붙으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꼽은 이러한 명승지가 당대 사람들이 모두 공유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경지략』에서는 명승에 수성동을 수록하고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수성동은 인왕산 자락이 있다.

골짜기가 깊고 그윽해서 샘과 바위가 뛰어나서 여름철에 노닐기에 가장 좋다.

어떤 이는 이 동이 비해당 옛터라고 한다. 다리가 있는데, 기린교라고 한다.

이곳은 현재 누상동과 옥인동의 경계로 원래 이 터에는 옥인시범아파트가 들어서 있다가, 2012년 아파트를 철거하고 기린교를 중심으로 계곡을 복원하여 옛 경관을 살렸습니다. 보시는 사진 속의 돌다리가 바로 기린교입니다. 이렇게 경관을 살리는 데는 안내 표지판에 소개된 겸재 정선의 그림과 『한경지략』 등의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동의 안동 김문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 외에는 19세기 이전에 이곳을 유람처로 언급한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성동, 청풍계, 청취각 같은 곳은 18세기 노론인 장동 김문에 의해 부각된 명소고, 정조대에 이들을 국도팔경으로 읊으면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곳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주관성 때문인지 당색에 따른 차이도 보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강준흠이라는 남인계 학자가 읊은 한양의 명소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유본예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한양의 여러 명소를 읊은 「한경잡영」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약 사십 곳 정도를 읊었는데, 이 사람이 읊은 장소는 『한경지략』의 여러 편목에 흩어져 대부분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경지략』의 명승 편목 중 장동 김문과 관련 깊은 이들 장소들은 강준흠의 시에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은 같은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라도 당색에 따라 교유의 범위가 달랐고, 장소에 대한 애착과 평가가 달랐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유본예가 생각한 명승의 개념은 무엇이이었을까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경지략』의 명승은 단순히 랜드마크같은 장소가 아니라, 유명한 인물과 사람들의 행위가 결합된 장소였습니다. 도성 안의 유명한 경관이나 건축물은 여러 편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경관에서도 유본예가 '명승'이라고 꼽은 것은 사람과 사람의 행위가 결합된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속의 필운대는 오성 이항복의 자취가 서려 있고, 꽃나무가 많아 봄이면 꽃구경을 온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여항 사람들도 술을 가지고 와서 북적거리며 시를 짓고, 이렇게 지은 시를 '필운대 풍월'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경치만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의 자취라는 역사와 현재 사람들이 펼치는 행위라는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장소가 『한경지략』의 명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절감도 살아 있었습니다. 봄에는 겸재 정선의 이 그림에서처럼 필운대나 세심대에서 꽃 구경을, 늦봄에는 북사동에서 복숭아 꽃을 구경하며 놀고, 단오에는 산단에서 씨름을 구경하고 한여름에는 천연정의 연꽃을 구경하거나 수성동 골짜기에서 물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쌍희정에서 단풍을 구경합니다. 이런 서술을 통해 19세기 사람들이 한양에서 어떻게 계절마다 즐기기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며 노닐었는지를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본예가 꿈은 명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꿈은 명승은 조선 전기의 명승에서 많이 달라졌고, 경복궁 주변 지역에 있는 곳이 많이 꿈혔습니다. 여기서 꿈힌 명승지는 단지 경치만 좋은 곳이 아니라 그곳을 거쳐간 사람들의 역사와 현재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본예 집안과 관계가 깊었던 장동 김문의 장소들에 편중된 특징도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꿈은 서울의 명승이 어디였는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을 거쳐간 위대한 사람의 자취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각동 편목을 살펴보겠습니다.





8-4 위대한 사람의 자취가 서려 있는 서울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그가 꿈은 서울의 명승이 어디였는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꿈은 명승은 단순히 경치가 훌륭한 곳이 아니라 인물의 자취와 현재의 문화가 장소와 결합되어 있는 곳이었으며, 장동 김문과 관련된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성 안의 여러 곳이 아주 세밀하게 완상의 대상이 된 점은 도성 밖 공간이 명승으로 꿈꿨던 조선 전기와 달라진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을 거쳐간 위대한 사람의 자취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각동 편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은 각각의 동이라는 뜻으로 한양의 여러 동에 대해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 이 편목은 명승처럼 『한경지략』에만 있는 편목입니다. 우리에게 '동'은 매우 익숙한 행정구역입니다. 그렇지만 조선 시대에 '동'은 정식 행정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한성부는 크게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오부로 나누고 그 아래 50여 개의 방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부에는 정선방, 경행방, 관인방, 수진방 등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울 안의 여러 동네를 '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덧 부르기 시작한 관습적 명칭을 독립적인 편목으로 설정해서 넣었다는 점에서 각동 편목은 저자의 서울에 대한 미시적인 지식과 정보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편입니다. 견문이나 야사가 많이 동원된 것도 이 편목의 특징인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경지략』의 정수가 담긴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각동 편목의 첫 부분에서는 먼저 이 '동'이 무슨 말에서 유래된 것인지부터 저자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관습적인 명칭이니 그 유래가 궁금했던 것이겠지요?



저자는 원래 글자 뜻대로 하면 동(洞)자는 동굴이라는 뜻인데, 그럴 리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거리를 호동(胡同)이라고 하며 거리 동(衙)자로 쓰기도 하니, 아마도 이 동이란 명칭은 거리 동(衙)자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편목 이름 아래에도 거리 가(街)자와 뜻이 통한다고 주석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편에서는 근 70항목 정도로 여러 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분류 없이 죽 나열하고 있기는 하지만, 순서를 보면 중부에서 시작하여 동부-남부-서부-북부 순으로 시계방향으로 서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성 밖 지역의 여러 동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70개 정도의 항목 중 2/3 정도에는 유명한 인물의 사적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부의 경우에는 총 다섯 개의 동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인물 얘기가 없는 곳은 내농포뿐입니다.

동부의 경우는 다섯 개의 동명 모두 인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유명한 인물인데, 홍덕전은 효종과 나인 홍덕의 설화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효종이 심양에 있을 때 나인 홍덕도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 김치를 잘 담가서 이를 바쳤다고 합니다.

효종 즉위 후에 홍덕도 속전을 내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김치를 만들어 나인을 통해 바쳤는데, 효종이 그 맛을 알아보고 상으로 이곳에 밭 약간을 내려주어, 그 밭을 홍덕전이라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 이름이 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남부의 경우는 가장 많은 동을 소개하고 있는 곳인데, 총 26개의 동 중에서 호위청동, 소공동, 야현, 초전동, 죽전동, 동현, 피란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물 관련 사적이 있습니다. 소공동은 남 별궁이 있던 곳인데, 이곳이 원래 태종의 공주 저택이 있었다고 하고 있어서 인물 얘기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서부는 6개 동 중 정동 하나를 빼고는 모두 인물 관련 사적이 있습니다. 정동도 국초의 정릉에서 이름이 비롯했다고 하고 있는데, 정릉은 태조 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능이니 인물 얘기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모든 동이 인물 관련 사적이 있는 셈입니다.

북부는 11개의 동 중 팔판동과 누각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명 인물 관련 사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누각동은 여항 서리배가 모여 살고 사대부는 살지 않는다고 해서, 신분적 차별 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밖의 여러 동도 비슷합니다. 16개의 동 중 왕심리와 고마청동을 빼고는 모두 인물 관련 사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동 편목은 기본적으로 유명 인물의 사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한양이라는 곳이 곳곳에 이런 역대 현인들의 자취가 서린 곳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서술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항목에서는 대략적인 위치나 이름의 유래를 먼저 설명하고 그곳의 유명한 사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동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진동은 방명으로 동을 칭하였으며, 목은이색의 영당이 있어서 매년 시제를 지내는데 참여하는 후손 및 유생이 매우 많다.” 수진동은 수진방이라는 방 이름에서 이름이 유래된 것인데, 여기에서 설명한 목은이색의 영당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색초상은 바로 목은영당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목은영당에서 매년 시제를 지내고 참여하는 후손이나 유생이 많다는 등의 내용은 서울 거주자인 유본예의 견문이 아니면 알기 힘든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각동 편목에 그의 견문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진동 항목 안설에서는 정도전의 집터가 있었다는 민간 이야기도 서술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정도전의 집이 수진방에 있었는데, 지금 중학이 서당 터이며 지금 제용감이 안채요, 지금 사복시가 마구간 터라고 한다. 정도전이 땅을 잘 볼 줄 알아서 말 수천 필을 매어놓을 자리를 점찍은 것이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정도전 집이 어디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 서당 터가 어디고, 안채가 어디고 하는 등의 아주 구체적인 속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도전이 땅을 잘 볼 줄 알아서 말 수천 필을 매어놓을 자리를 점찍었더니, 훗날 말을 관리하고 키우는 사복시 터가 되었다는 얘기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견문이 드러나는 얘기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현동은 남산 아래에 있으니, 역시 방명으로 동 이름을 부른 것이다.

문익공 정광필의 옛집이 있어서 지금 그 후손이 대대로 살고 있다.

신들린 사람이 이 집 은행나무에 12개의 서대가 걸릴 것이라고 고하였는데,

정씨 중에 정승이 된 사람이 자못 많은데도 아직도 남은 서대가 있다고 사람들이 일컫는다.

또 양파 정태화의 옛집도 이동에 있다.



옛날에는 사랑채 1칸짜리 집이었는데,
형제가 정승이 되었는데도 같이 거쳐하며 좁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그 안채는 청음 김상헌이 태어난 방이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컬어서 감히 옛 모습을 바꾸지 못한다.
또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옛집이 이 동네 있으므로
정여창의 후손이 매년 거주인에게서 그 가대세를 받는다.

서대는 정승이 차는 관대입니다. 정광필 옛집에 12개의 서대가 걸린다는 얘기는 정승이 12명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선지 이 집안에서 정승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12명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속덕대는 이야기가 파다했던 것 같습니다.

정태화 형제가 둘 다 정승이었는데도 좁은 집에 거쳐했다는 얘기, 그 안채가 외손인 김상헌이 태어난 곳, 이러한 이야기는 모두 이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거기다 그 후손이 남에게 그 집을 빌려주고 그 값을 받는다는 정보까지 아는 것은 서울 사람으로 그 동네 소식을 아는 이가 아니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김상헌이 태어난 곳이라는 서술에서는 김상헌에 대한 경외감 같은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명승 항목이 장동 김문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처럼, 각 동 항목에서도 장동의 안동 김문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매우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어투로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유본예가 사랑한 규장각이 여러 편목에서 서술이 된 것처럼, 장동 김문의 사적 역시 여러 항목에서 서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의동 청풍계는 김상용의 옛집이었다고 하여 장의동 항목에서 이미 서술하였는데, 이곳에 있는 김상용의 정자와 사우를 태고정이라는 항목에서 또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이곳에는 '대명일월 백세청풍'이라는 각자가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에는 '백세청풍' 각자만 남아 있습니다.

각동 편목의 여러 동 중에서도 분량상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은단동입니다. 속칭 미장동이라고도 한 곳인데, 여기에서는 「통문관지」를 아주 길게 인용했습니다. 이는 역관 홍순언의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전 어느 때, 이 사람은 사행 중에 기생집에 놀러 갔다가 부모를 잃고 장례를 치를 값을 마련하기 위해 나온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성의 사연을 들은 홍순언은 이 여성을 취하는 게 아니라, 가진 돈을 다 주어 장례를 치르게 해주는 의로운 기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후에 예부시랑 석성의 후처가 되어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자 그가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홍순언이 역관으로 명에 왔을 때 석성이 조선의 여러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는 석성이 마침 병부상서여서 조선에 원군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의 이름이 보은단동이 된 것은 이 여성이 홍순언에게 오색 비단 10필씩을 담은 나전함을 선물하였는데, 그 비단 끝에 모두'보은'이라는 두 글자가 자수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경지략』 뿐만 아니라 『연려실기술』을 비롯한 여러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당대에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이 시기까지도 임진왜란으로 망할 뻔했다가 명의 도움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대명의 리론이 여전히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서사였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한경지략』의 창덕궁 편에는 명 황제에 대해 제향을 올린 대보단이, 사묘편에는 임진왜란 때 죽은 명의 장수와 군인을 위한 제사처인 민충단과 선무사, 임진왜란 중 명 장수들이 요청하여 세운 동관왕묘, 남관왕묘처럼 명이나 임진왜란 관련된 장소들이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각동 편목에서는 근 70항목 중 삼분의 이 정도의 동에 그곳에 어떤 이가 살았는지, 그 사람이 남긴 어떤 유적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담긴 곳인지 등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그중에는 자기 집안이 산 교서관동도 있었습니다.

교서관동은 옛날에 교서관이 이곳에 있었으므로 운동이라고도 칭하였다.
예전 장군 임경업의 옛 집터로, 운관의 부군당 신상이 곧 임장군이라고 한다.
예전 정조 때 이 동에 우리 집이 오래 살았는데,
아버지가 고운(古芸)을 당호로 삼은 것이 이 때문이었다.





임경업은 조선 후기에 명에 대한 의리를 상징하는 인물로 추앙받았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시기를 살았던 무장 임경업은 병자호란으로 청에 패전했음에도 명을 돕고 중원을 회복하려는 것을 기도하다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특히 숙종 대 이후 임경업이라는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임경업의 옛 집터가 있던 동네에 대하여, 서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서울을 거쳐간 위대한 사람들과 자신도 나란히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책을 펴내는 일을 맡은 교서관이 있던 동네에 자기 집안의 집이 있었다는 점, 아버지의 호가 여기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밝힌 것 등은 규장각 검서관으로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재의 자기 집안에 어떤 역사적 필연성 같은 것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지략』의 특색이 가장 잘 보이는 편목 중 하나인 각동 편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본에는 위대한 사람이 살아간 장소로 서울의 의미를 두었는데, 이는 당대에 수도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 문화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본에 당대 서울은 이렇게 근엄하고 위대한 인물의 자취로만 가득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변화하고 흥청흥청한 도시로서의 모습도 지니고 있었는데, 『한경지략』은 오히려 그런 모습은 잘 그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시기 유행한 『한양가』와 비교하며 『한경지략』이 지닌 특징을 좀 더 추출해보겠습니다.





8-5

『한경지략』과 『한양가』가 보여주는 서로 다른 한양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경지략』의 특색이 가장 잘 보이는 편목 중 하나인 각동 편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명 인물의 사적이 거의 담겨 있고, 저자의 견문과 구체적인 지식이 아주 잘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은 시기 유행한 『한양가』와 비교하며 『한경지략』이 지닌 특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본예가 『한경지략』을 저술했던 19세기, 한양을 다룬 또 하나의 작품이 유행했습니다. 『한양가』라는 이름으로 전해진 국문가사인데, 여기에서는 비슷한 시기 두 작품이 그려내는 한양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한양가』는 한산거사가 창작했다고 전해지는 국문 가사입니다. 한산거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액정서 별감 출신으로 추정합니다. 액정서는 궁궐 안 잡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가사에서는 별감의 외모나 놀이 등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자세합니다. 그래서 액정서 별감 출신이 한산거사라는 별칭으로 지은 노래가 아닐까 하고 추정합니다.

『한양가』는 4음보를 1행으로 잡을 때, 704행 정도 되는 긴 가사로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화면의 왼쪽은 필사본이고, 오른쪽은 목판본입니다. 둘 다 모두 “천지개벽하니 일월이 생겼어라. 성신이 광휘하니 오행이 되었어라.”라고 하며 천지개벽부터 시작합니다.

『한경지략』과 『한양가』,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먼저 『한경지략』은 대체로 1830년~1842년 사이에, 『한양가』는 1844년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둘 다 비슷한 시기의 한양을 묘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경지략』 필사에 책채 송신용과 가람 이병기가 관여한 것처럼, 『한양가』도 책채 송신용이 역주본을 간행하며 널리 보급되고 가람 이병기가 논문을 쓰기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경지략』의 저자 유본예는 규장각 검서관 출신으로 서얼 집안 출신이기는 해도 사대부로서의 자의식을 뚜렷이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한양가』는 액정서 별감 출신이 쓴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사대부라 부를 수 있는 층은 아닙니다. 신분은 다르지만 둘 다 궁궐에서 일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



『한경지락』은 한문 산문이고, 『한양가』는 한글 운문입니다. 이러한 장르적 차이는 책의 대중성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경지락』은 너댓 종 정도의 필사본만 전하는데, 그나마 19세기 당대 필사된 것은 별로 없고, 적어도 2종은 확실히 20세기 이후에 필사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한양가』는 앞서 본 것처럼 목판본도 전하고 필사본도 전하는데, 목판본은 1880년에 간행되었고 그것도 여러 종의 판본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가』가 나라에서 간행한 게 아니란 점을 생각해 보면, 대중적으로 꽤 인기가 있어 여러 업자가 달려들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저자 모두 궁궐에서 일하며 관청을 드나든 사람이라 그런지, 두 작품 모두 궁궐과 관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경지락』에서도 책의 거의 절반은 궐안팎의 관서를 서술하는 데 할애가 되었고, 『한양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같은 궁궐과 관청을 묘사하더라도 초점이 다릅니다. 여기서 『한양가』의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건장한 무예청은 자주색 군복 남색 전대에 십팔기예를 주장하니 기상이 용맹하다.
 밤이면 호피 두건, 호피 군복, 세모 방망이에 파수마다 앉았으니
 임금님 호위하는 군인이 되어 있고,
 맵시 있는 액정서 별감은 이팔청춘 아이로다.
 당당 홍의 보라색 두건 남색 넓은 띠를 가슴에 눌러 띠고,
 빛 좋은 순금 동곳 큰 대자 새겨 내어 모양 좋게 꽃아 있고 ……
 각 처소 나인들은 안 일을 맡았는데
 지밀 침방 수방이며 생것방 소주방이 여러 관청 각각 맡아 아침 저녁 문안이며
 의대 치수 묻고 침선이며 수라 진찬 직분이로다. ……
 나이 많은 무수리는 저근머리 긴 저고리 검푸른 빛 무명 넓은 띠에 문패를 비껴 차고
 각 궁궐 노자(종) 모양들은 병거지 넓은 갓끈 두루마기 짙은 남빛 소매 길게 하여 입고
 내병조 군사 문마다 지켜 있어 잡인을 금하고 가족 채찍 손에 들고
 이리 뛰며 저리 뛰니 기상이 사납구나



『한양가』에서는 무예청의 군인, 액정서 별감, 궁궐 나인뿐만 아니라 무수리와 궁을 출입하는 종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종은 벼거지를 쓰고 짙은 남색의 긴 소매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차림새까지 길게 거론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궐 안에서 일하는 문신 관료는 승정원 승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했을 뿐, 홍문관, 내각의 각신이나 춘추관의 한림 등은 관직 이름이나 한번 언급해주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한경지략』에서는 승정원, 홍문관, 춘추관 같은 문한 기관에다 대청이나 빈청처럼 문관이 드나드는 곳을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규장각의 경우엔 거의 창덕궁 편의 주연처럼 엄청 많은 이야기를 수록해놓았습니다. 정조 때 이야기, 전각 구조, 심지어는 우물의 물맛 같은 주변의 환경까지 길게 설명했습니다.

검서관 관련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했던 『한경지략』에 비해, 『한양가』에는 검서관은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규장각 검서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지극히 유본예 개인의 경험과 위치에서 비롯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한경지략』에는 궁녀나 무수리 같이 궁궐에서 일하는 여성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본예 같은 엘리트층에서는 궁궐 안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거리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층 신분으로 갈수록 남녀의 내외가 심했던 것을 잘 보여줍니다.

두 저자의 관심은 같은 공간도 다르게 읽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옥류동과 송석원입니다. 두 곳은 인왕산 아래 아주 가까이 위치한 지역으로, 석벽 사이로 흐르는 물이 아주 멋진 경치를 자아내서 한양의 명승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옥류동에는 안동 김문의 김창협 집안의 청취각이 있었고, 송석원에서는 18세기 평민 시인인 천수경 등이 주도한 송석원시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이 시사는 중인층이 당대에 반영하며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경지략』의 유본예는 송석원시사가 열린 당대를 함께 살아갔으면서도 송석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에 비해 옥류동과 청취각만 서술했습니다. 『한양가』는 김창협 이름도 나오지 않고 천수경의 시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류의 문예적 성취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송석원과 옥류동이 모두 놀기 좋은 곳으로 둘 다 등장 한다는 점에서는 송석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의 화가 김홍도나 이인문은 송석원에서 열리는 시회 등을 그린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송석원에서 열리는 이런 종류의 모임은 꽤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유본예도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한경지략』에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양가』에서는 송석원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만, 시회 얘기는 없고 좋은 놀이처 중 하나로만 등장합니다. 이는 유본예와 한산거사가 같은 시기를 살았음에도 한양의 다른 곳을 주목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송석원의 시회를 그린 김홍도나 이인문은 이들과도 또 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김홍도의 「송석원시사야연도」는 이 시사에 참여했던 규장각 서리를 지낸 김의현의 의뢰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김홍도의 그림은 송석원시사 당사자의 시선을 담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같은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장소에 대한 인지가 다를 수 있고, 인식하는 내용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송석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놀이에 대한 묘사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경지략』에서는 꽃 구경과 시회 정도가 놀이에 대한 설명의 대부분입니다. 좀 더 평민이 즐겼을 만한 놀이라고 해봐야 산단의 씨름놀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양가』에서는 별감들이 즐겼다는 승전놀음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승전놀음이 벌어지는 곳은 북일영의 군자정입니다. 한껏 차려입은 별감이 차일을 치고, 등을 밝혀 각색 기물을 늘어놓고 악공과 기생까지 불러 벌이는 놀이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어서 『한양가』 서술의 특징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저자를 추정하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에 비해 『한경지략』에는 이 군자정 이름이 등장하지만, 거기에서는 그저 활을 쏘는 정자라는 소개와 조현명이 편액을 썼다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두 기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시전에 대한 상세한 묘사 역시 『한양가』의 압승입니다. 『한경지략』에서는 면전, 면주전, 포전, 지전, 어물전 등의 시전의 이름과 무엇을 파는지 등을 건조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면전의 경우에 “면전이라고도 하고 또 입전이라고도 한다. 서서 물건을 판다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 중국 비단을 판다.”고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육의전에 속하는 시전을 소개한 후 “이상 각 시전은 모두 종가에 있는데, 육의전이라고도 칭한다. 의는 민간에서 주비라고 부른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양가』의 육의전 서술은 시작부터 아주 생동감이 넘칩니다. “큰 광통교 넘어서니 육주비전 여기로다. 일 아는 거간꾼과 물건 맡은 시전 상인은 큰 창옷에 갓을 쓰고 소창옷에 한삼 달고 사람 불러 흥정할 제 경박하기 측량없다”라고 하며, 왁자지껄한 시장판의 모습부터 묘사합니다.

『한경지략』에서는 육의전이라고 쓰고 민간에서 ‘육주비전’이라고도 부른다는 말은 해설로 달았는데, 『한양가』는 바로 그 민간의 말로 쓰인 가사기에 ‘육주비전’이라고 바로 호칭하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렇게 같은 19세기 전반을 살아갔으면서도 두 저자가 보는 한양은 달랐습니다. 『한양가』는 도시의 변화하고 화려함을 찬양하고, 최하층인 종부터 무수리, 궁녀, 상인, 왈짜, 여항 서리배에 사대부까지 다채로운 한양의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그에 비해 『한경지략』에서는 각동 항목에서 본 것처럼 위대한 인물이 거쳐간 사적지로, 매우 제한적인 계층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기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양가』의 완승이었다고 하겠습니까. 1880년부터 이 책은 업자들이 달려들어 목판으로 간행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한경지략』의 경우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자료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유본예의 희망과는 달리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 동시대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19세기의 한양을 다채롭고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지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훑어보면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보기 힘든 한양 사람 유본예의 미시적인 지식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어, 이 책이 19세기 한양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 유행한 『한양가』와 비교를 해봄으로써, 『한경지략』이 담고 있는 세계 역시 당대 한양의 부분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한양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조선 시대 한양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현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옛 자취와 정보를 확인하기 힘든데, 유본예가 남겨준 『한경지략』과 같은 자료가 없었다면 더욱 미궁에 빠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비록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속편 제작에 활용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책은 현재 연구자를 비롯하여 서울의 장소성을 찾고 개발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 도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본예의 희망은 한 세기 후에 실현되었다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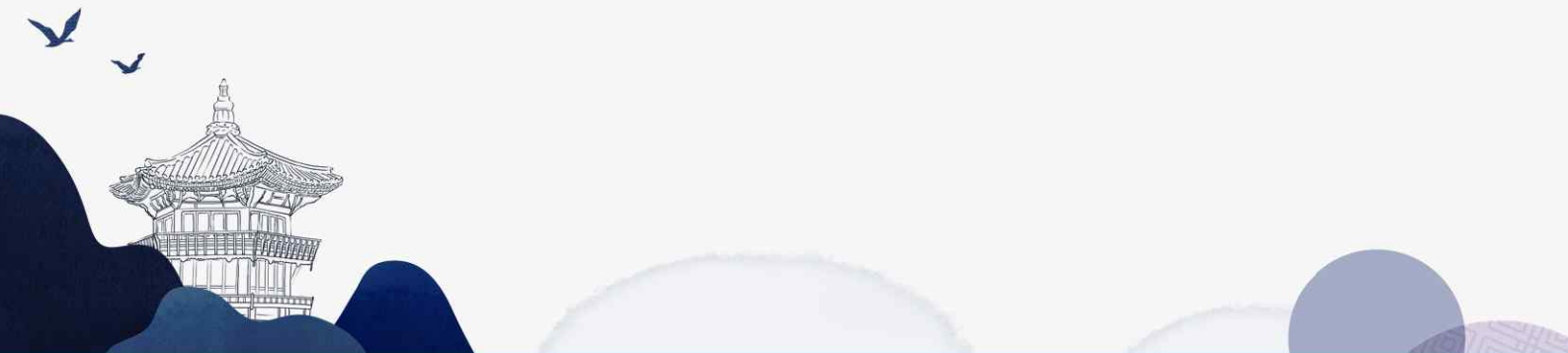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이상으로 『한경지략』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8

Reading Han'gyeongjiryak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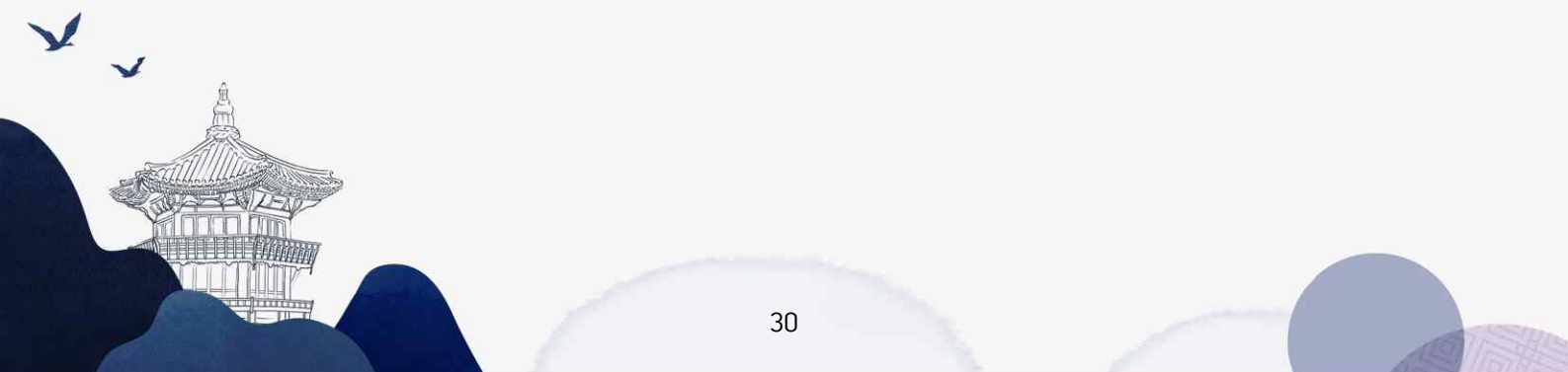
Kyujanggak, Loved by Yu Bon-ye

Hello, students. I'm Jang Jiyeon, one of the lecturers of <Revisiting Korean Classics>, and I'm going to give you a lecture about Han'gyeongjiryak (A Short Description of the Capital). This is the eighth lecture and I would like to proceed with the theme of 'Reading Han'gyeongjiryak.' The topic is a follow-up to the last lecture's theme, 'Understanding Han'gyeongjiryak.'

In the last lecture, we looked at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Han'gyeongjiryak and its author, Yu Bon-ye. From the completion of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ical Conspectus of the Eastern Kingdom) in the 16th century, there was no geography book dealing with Hanyang alone until Han'gyeongjiryak appeared in the 19th century. While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generally contains the picture of the early Joseon Dynasty, Han'gyeongjiryak can be said to portrait the changed look of Hanya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About a generation after this book came out, Hanyang underwent another drastic change, as new culture was introduced. With this in mind, we can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is book in that it is a geography book that describes Hanya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before the change began.

Last time, we talked about this book having a lot of Yu Bon-ye's personality despite the dry style of a geography book.





I explained his personality by summarizing his pride that, despite being the descendant of an illegitimate son, his father, brother and himself served as editor-compilers of Kyujanggak and that he was a Seoulite, who lived all his life in the Capital, with the conscious self-identification with the nobility. I also mentioned that his father Yu Deukgong's relationship with Bak Jega and Bak Jiwon was reflected in the selection of information, and that many places related to Jangdong Gim clan, the prestigious family of Noron (Old Doctrine), were also included.

Yu Bon-ye wrote this book based o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ical Conspectus of the Eastern Kingdom), but he dismantled the format and built his own, and he referred the information chang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o Dongguk Munheon Bigo (Reference Compilation of Documents of the East Kingdom) compiled in the 18th century.

In addition, his book contains various stories from unofficial history and knowledge that only Seoulites can have. Although he omitted almost all the poems i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the book did not contain practical information such as household census or local products, so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 geography book solely for practical purposes. In that sense, it is also a geography book intended for humanistic edification, which is deeply related to his personality, who identified himself with the noblemen.

Meanwhile, we saw that this book's explanation of various places in Hanyang is quite descriptive. This was also considered to be a feature consistent with the popular painting Seongsijeondo (Painting of the Capital) and the poems about it. Now, let's read some parts of the text and see how these characteristics are expressed in the actual description.

First of all, let's take a quick look at the table of contents and the book's composition. There might be some unfamiliar terms for today's readers, so let me explain a little bit about them first. 'Cheonmun (Astronomy)' is a section that reveals the constellation corresponding to Hanyang and its altitude of Polaris. Simply put, they are equivalent to today's longitude and latitude coordinates of Hanyang.



'Hyeongseung (Advantageous Position)' is today's topography, and 'Gunggweol (Royal Palaces)' is the palaces we know of, such as Gyeongbokgung or Changdeokgung. But 'Gungshil (Royal Space)' is the public space built by the state. That is, diplomatic buildings such as Hall of Great Peace or various pavilions along the Han River belong to this category.

You might think that pavilions are space for entertainment, but they are also public space in that they were built for public purposes such as the king's trip or the tour of envoys.

'Danyu' is a memorial service place in the form of a podium like Sajikdan (Altar to State Deities), and 'Samyo' is a memorial service place with a building-type shrine. 'Myo-jeon-gung' is a section describing royal shrines including Jongmyo. Myo has the highest hierarchy, followed by jeon, and then the gung. In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hierarchies among all of these names.

'Wonyu' refers to the back garden of the palace. 'In-house Offices' means various government offices in the palace, and 'External Offices' means those located outside the palace. Uijeongbu (Council of State) and Yukjo (Six Ministries) belong to these categories. 'Yeok-weon' means stations (yeok) and accommodations (weon), the main points on the traffic route, but there is not much content.

'Gyoryang' refers to bridges, and 'San-cheon' covers major mountains, hills, rivers, and streams such as Samgaksan, Inwangsan, Sahyeon, and the Han River. While Hyeongseung explains the overall geography of Hanyang, San-cheon is a detailed description of notable mountains and streams. 'Scenic Spots' is fun places with great view, and 'Each Dong' is a description of various areas in Hanyang. Lastly, 'Markets' explains various marketplaces in the capital, including Yukuijeon (Six Licensed Stores).

There are entries under these sections, and if an entry has more detailed description with items of its own, it is marked with a circle to distinguish. And usually at the end of each entry, the author's commentary is written one line down the main text, with a tag of 'an (remark)' or 'geunan (careful remark).' As you can see on the screen now.





Now let's go into the actual narrative. First, let's look at how his career and pride as a lifelong editor-compiler of Kyujanggak influenced his narrative.

In the last lecture, we learned that Kyujanggak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descriptions in Han'gyeongjiryak. It is included in the Changdeokgung Palace in the Royal Palaces section, as well as in the In-House Offices in Changdeokgung of the In-house Offices section. An institution is described both as a pavilion in the palace and as a government office.

In addition to these double explanations, the amount spent for Kyujanggak is also considerable. For example, if you look at the commentary at the end of Changdeokgung Palace, the yellow mark is the part related to Kyujanggak. It accounts for about two-thirds of the commentary even if you roughly estimate it with your eyes.

This commentary explains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of the establishment of Kyujanggak, citing Kyujanggakji (History of Kyujanggak). It says that the discuss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Kyujanggak has a long history that originated from the suggestion of Yang Seongji in King Sejo's reign, but it couldn't be realized due to insufficient scale or system during the King Sejo's and King Sukjong's reigns, and in King Jeongjo's reign, the archives could be finally established.

It also mentions Gujin Tushu Jicheng (The Imperial Encyclopedia) in the collection. Gujin Tushu Jicheng is a 10,000-volume yuseo completed by the edict of Emperor Kangxi, the fourth emperor of the Qing Dynasty, and to put it simply, yuseo means encyclopedia. It is the largest surviving encyclopedia of China, and King Jeongjo paid more than 2,000 nyang of silver coins to obtain it.

Han'gyeongjiryak not only states that this book is one of the collection, but it elaborates on its composition and even how many chests are needed to contain all the volumes. In addition, it presents the eight scenic views of Kyujanggak, and considering that the archives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during King Jeongjo's reign, and that its history was very short, we can tell how much affection and interest the author has for Kyujanggak.



Furthermore, this commentary is for Changdeokgung Palace, and the description of Kyujanggak is too long in this entry, which means that Changdeokgung Palace is recognized as a space for Kyujanggak by Yu Bon-ye.

In-house Offices of Changdeokgung, in the In-house Offices section, also has a detailed description of Kyujanggak. This area on the screen corresponds to Jigwon of Kyujanggak. Jigwon refers to the space where officials work. Imunwon, Daeyujae, and Soyujae are the main buildings, and while basically, Han'gyeongjiryak does not include poetry and only includes the author and the title in the case of recorded writings, but, the entire writings engraved on Cheugugi (the rain gauge) and Jonggyeongga installed here are included, which confirms again the importance of Kyujanggak in this book.

Among these buildings, Soyujae was a special place for Yu Bon-ye because it was the place where editor-compilers stayed on night duty. Let's see how the author describes it.

When the king came to Imunwon in the first lunar month of 1795, the 19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 he said that the editor-compiler's night duty office was small, prepared means at the main office and had it rebuilt next to the old office. Editor-compiler Bak Jega supervised the construction and completed it in the 9th month that year. There are 5 rooms in the front and 2 rooms on the side, and the wall is made of boards and soil is not used. The building was built to face Geumcheon in the east, and a pond was made by drawing stream water. It has Mt. Bugak at the back and Namsan on the west side, and the scenery was great with beautiful railings along the water. After the king spent the night himself, he made it King's lounge and named it Soyujae. Since he let the editor-compilers keep it, it finally became a place where they stay on night duty.

It explains that King Jeongjo cared about editor-compiler's night duty, and the king himself spent the night and told them to keep it, dignifying the building. It is a record of King Jeongjo's special treatment for editor-compilers.





While the story of King Jeongjo is from the memory of his father's generation, there is also an episode that Yu Bon-ye experienced firsthand. In 1826, the 26th year of King Sunjo's reign, Crown Prince Hyomyeong once stayed at Soyujae for a spring memorial service at Daebodan (Altar of Great Requit). The commentary in the entry of Kyujanggak says that at this time, Crown Prince Hyomyeong wrote a five-word eight-line poem titled Reading Spring and Autumn and hung it on the wall of Soyujae, but now it was carved on a board and hung.

And the very signboard still remains like this. Han'gyeongjiryak doesn't present the poem, but the signboard remains, so you can read it. It is a poem about reading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in beautiful nature where you can hear the sound of drizzle on a spring day and ponder on the meaning of a ritual at Daebodan.

Meanwhile, there are other things that can only be known to the author, who had experience of working in this place.

There was a pair of tamed cranes in the main building, which was brought in after sending an official to the coastal region of Hwanghae-do, and their feed was in the kitchen of Imunwon. There was a pair of perch trees in the courtyard of Imunwon, which was planted by Yi Cheolbo (1691-1775), the previous Commander. Twenty years ago, the one on the east side dried up and died. And Geugong Yi Mansu, the Director of in-house offices, who was his descendant, planted a young perch tree as a supplement.

The story of the cranes raised here and the story of planting a new tree reveal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author, who worked here for a long time. You can obviously see the author's affection for this space.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description of Kyujanggak, which ha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author, Yu Bon-ye, and his family.





The description of Kyujanggak takes up a lot of pages, and the explanation was accurate, direct and detailed, reflecting the author's own knowledge and experience. It is consistent with the descriptions of Kyujanggak and surrounding areas in other records, so this part is highly accurate. This was possible because of the author's affection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The theme of this session was 'Kyujanggak, loved by Yu Bon-ye.' Next time, we will look at the content in terms of detailed information that only Seoulites can provide.





8-2

Detailed Information Only Seoulites Can Provide

Hello, students. Last time, we looked at Kyujanggak, which Yu Bon-ye loved. We saw how much information about Kyujanggak he provides and how specific and accurate it is. This time, we will explore the detailed information in Han'gyeongjiryak that only Seoulites can provide.

Yu Bon-ye had confidence that he could write well about Seoul because he was born and raised in Seoul. In fact, Han'gyeongjiryak has a lot of detailed information, and here, we'll look at the part that describes the water in Seoul.

Many small streams flow down from Baegak, Inwangsan, Namsan, and Naksan in the Capital. These streams gather in the central creek, Gaecheon, or Cheonggyecheon, and flow out to the east of the city. Although there was no explanation of the various streams in the capital in the 16th century's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ical Conspectus of the Eastern Kingdom), Han'gyeongjiryak included all the streams in the capital.

The order of description was to go over the branch streams from Bugak and Eungbong from upstream to downstream and from west to east, with Cheonggyecheon at the center, and then to list the branches at the foot of Namsan from west to east. And it finally covers streams outside the Capital, including the branches from Inwangsan and Muak, and even Salgoji Bridge over the downstream east of the Capital.

Along with the various branches, it describes all the bridges over them. The number of bridges is less than 20 i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Except for Yeongdogyo, Jeban'gyo, Cheongpasin'gyo, Gyeonggogyo, and Hongjegyo, the rest are the waterways within the capital, and except for Songcheomgyo, all bridges are over the main stream of Gaecheon.





However, Han'gyeongjiryak lists all the bridges of each branch, so the number reaches 50. Bridges are described in the order of upstream to downstream, from Baekdongcheon at the beginning through the bridges over Gaecheon to the Songpa River. The names in parentheses are the nicknames of the bridges. Yu Bon-ye also describes how these nicknames came to be used.

For example, the Shin'gyo of Baekgyeongcheon in the picture was also called Haryanggyo, because in the past, Ha Ryangwi lived next to this bridge. This kind of detailed knowledge wouldn't have been available if the author hadn't been a Seoulite. Of course, this kind of information is inaccurate because it was a popular myth circulating in the neighborhood. There is no other record of who Ha Ryangwi was, after whom this bridge was named. This kind of information in Han'gyeongjiryak should be approached as the common knowledge that the 19th century Seoulites had, rather than accurate historical facts.

Let's compare this map with the description of the bridges in the book. This is Hanyangdo by a person named Wi Baekgyu, who lived in the 18th century. He lived one generation earlier than Yu Bon-ye. He spent almost his entire life as an unknown scholar in a remote area of Honam. Perhaps that's why, the wall, the palaces such as Gyeongbokgung,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Sungkyunkwan, confucian shrines, and the market are almost everything he could think of as Hanyang.

The waterways in the city are represented on this map, but they're not so accurate. None of the streams originating from Namsan and flowing down to Gaecheon are expressed. Moreover, only Gwangtonggyo Bridge at the junction of the market and Gaecheon is marked, and the rest of the bridges were not there at all. There are no roads, nor any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marked except for five bu (districts).





This shows that his interests were limited to several impressive structures in the capital, Hanyang, such as the city wall, palaces, and the market, and to Sungkyunkwan (Royal Confucian Academy), probably because he belonged to the nobility. It also shows that he was not able to express them in detail because he didn't have any specific information. Compared to this, Yu Bon-ye was a person who could name more than 50 bridges in Seoul and even with their nicknames.

Another example of this detailed knowledge is the Well and Spring section. This is not included i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or Dongguk Munheon Bigo. Let's take a look at a description of a well.

The Mijeong Well is outside the Donuimun Gate. The quality of the water is very good, but it is the second place because the water of Tongjeong Well in Hullyeonwon is the best. Common people also call it Chorijeong because it overflows long but does not dry out even in severe drought. Chori means tail in Korean. It is called this way because the water overflows like a tail. The water tastes sweet and clean, and is suitable for dyeing, so many indigo dyeing houses are next to it.

Such content as reviews of the taste of water, explanations of its characteristics, and the origin of the name of the well would not be available unless the author is a Seoulite. Here's an interesting piece of information about the Chori Well. This is a vernacular prose-poem written by a man named Yi Un-yeong, who lived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We are white dragons, so we will rule the west. At the border of the Bansongbang brazieri, on the vein where the octagonal pavilion was built, a pothole was chosen. It's been around for 300 years, so once we hit it with our tail, delicious water came out. Therefore, the world calls it Chori Well.

Here, the word tail in the name Chori Well is associated with a white dragon guarding the west side of the capital city hitting its tail to make a well. Although it explains the origin of the Chori well's name differently, it seems clear that it was a well that was quite famous in Hanyang to the extent that a man named Yi Un-yeong wrote a prose-poem about it.



The description of Yakcheon (the mineral spring) is also fascinating. Among the springs around the city wall, Yakcheon outside Donuimun Gate and Okcheonam Hermitage outside Changuimun Gate, which were popular because of their medicinal effects, are introduced as follows.

Yakcheon is located on the west side of Mohwagwan outside Donuimun Gate. There is a rock between the valleys, and it is called Akam. Spring water flows out of its crack, and it is said to be effective if people with stomachache and diarrhea drink as much as they want.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bring gourds and drink it every summer that not all of them can drink it in a day. Also, there is a temple called Okcheonam next to Hanbukmun Gate outside Changuimun Gate, and spring water comes out from between the rocks there. It is said to be wonderfully efficacious for people with palsy or indigestion, and can wash away cure eye diseases. The Buddha statue of Okcheonam was made by cutting a rocky hill, and it is called Haesu Gwaneum (Guanyin of the Sea). Since Yakcheon is nearby, many people in Seoul who want to drink the spring water go to the temple and eat salty food first that will keep them drinking water, and then drink the water all day long to be full in order to see the efficacy.

It's intriguing that they went to a temple to eat salty food first to drink a lot of water from Yakcheon. The Haesu Gwaneum, which was made by cutting the rocky hills of Okcheonam, still remains. It is a statue of rock-carved Bodhisattva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hat is over 5m tall and has been designated as a treasure.

So far, we have looked at how the detailed knowledge of Yu Bon-ye, who was born and raised in Seoul, was reflected in Han'gyeongjiryak. His knowledge was so specific that not only could he list the names of all the big and small bridges in Seoul with their nicknames, but he could also evaluate the taste of wells and measure its popularity.

Next time, let's explore the famous scenic spots in Seoul that he picked with such rich knowledge and see what characteristics they have.





8-3

Where Are the Scenic Spots in Seoul?

Hello, students.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how Yu Bon-ye's detailed knowledge was reflected in the Han'gyeongjiryak through the Bridges and the Wells sections. This time, let's take a look at the scenic spots in Seoul he chose and see what characteristics they have.

Scenic Spots, along with Each Dong, is a section that is only found in Han'gyeongjiryak. Although it is titled Scenic Spots, the entries are not just places with a beautiful view, but many of them have traces of renowned people, so a lot of the contents overlap with those of Each Dong. Even so, a scenic spot has the characteristic of being a place where people enjoy the view or rambling. Then let's take a look at what kind of places he picked as scenic spots in Seoul.

This table shows the location of the scenic spots in the book. 19 places are included, of which 13 are inside the wall and 6 are outside, so the proportion of the inside of the wall is higher. Among the scenic spots inside the wall, nine places are around Gyeongbokgung, which is overwhelmingly the biggest number, and the eastern and Namsan area have only two places each.

The scenic spots outside the wall are evenly distributed with one or two places, in Namsan, Hyehwamun, Changuimun, Donuimun, and the Han River.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of early Joseon Dynasty, when most of the scenic spots were located outside the capital city wall, along the Han River or at the foot of Namsan.

Yongjaechonghwa (Assorted Writings of Yongjae), written by Seong Hyeon in the 15th century, has a comment that there are few scenic spots inside the city wall, although the foot of Baegak, Inwangsan, and Cheonghak-dong of Namsan are quite beautiful. On the other hand, in the 19th century, Han'gyeongjiryak picks the most places inside of the city wall, especially around Gyeongbokgung at the foot of Baegak, as famous scenic spots, which shows great change.



In the 15th century, the scenery in the Capital city was not yet considered an object to enjoy, but in the late Joseon Dynasty, various areas inside the city wall were finely divided and became a place to enjoy. This is how the perception of scenic spots changes.

This table sorts out the scenic spots listed in the book. There are nine places around Gyeongbokgung: Pilundae, Dohwa-dong, Yuran-dong, Hwagae-dong, Sesimdae, Suseong-dong, Okryu-dong, Baekryeonbong and Mongdapjeong. Two places are in the east of the city: Song-dong and Hyeopganjeong. And two more places are at the foot of Namsan inside the city wall: Ssanghoejeong and Cheonugak.

Of the area around Gyeongbokgung Palace, Pilundae, Sesimdae, Suseong-dong and Okryu-dong are at the foot of Inwangsan, Dohwa-dong, Yuran-dong and Baekryunbong are at the foot of Bugak, and Hwagae-dong and Mongdapjeong are at the west of Changdeokgung. So, the proportion of Inwangsan is relatively high. Outside the city wall, Buksa-dong is outside Hyehwamun Gate in the northeast, Sandan is at the outskirts of Namsan, Segeomjeong is outside Changuimun Gate in the northwest, and Cheonyeonjeong is outside Donuimun Gate in the west. Eupcheongru and Changhoejeong are selected near the Han River.

A large number of areas that were not noted i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become scenic spots like this, but on the other hand, some places that were famous for beautiful scener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ere excluded. Let's take Namsan, for example. People used to mention eight scenic views of Namsan and called them Namsan Palyeong. However, Han'gyeongjiryak has only three spots near Namsan, including both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ity wall.

These areas in Bukchon of Hanyang are historical sit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Andong Gim clan in Jang-dong. It is the very family that is widely known as the leader of the 19th century power politics. These places emerged as representative scenic spots of Seoul with Yi Byeongyeon's poems and Jeong Seon's paintings in the 18th century, both of whom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se scenic spots selected in this book were shared by all the people of the time. For example, in Han'gyeongjiryak, Suseong-dong is chosen as a scenic spot and described as follows.

Suseong-dong has the foot of Inwangsan Mountain. The valley is deep and quiet, with excellent springs and rocks, making it the best place to stroll in summer. Some say that this dong is an old site of Bihaedang. There is a bridge, and it is called Girin'gyo.

This is the boundary between today's Nusang-dong and Ogin-dong, and it was originally the site of Ogin Sibeom Apartment, but in 2012, the apartment was demolished and the valley was restored around Girin'gyo to revive the old scenery. The stone bridge in the picture you see is Girin'gyo. Gyeomjae Jeong Seon's paintings and Han'gyeongjiryak, which were introduced on the information panel,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viving the landscape.

However, except for Andong Gim Clan in Jang-dong and figures related to the family, it is difficult to find people who mentioned this place as a tourist destination before the 19th century. Places such as Suseong-dong, Cheongpunggye, and Cheonghwigak became famous by Jangdong Gim Clan, the leader of Old Doctrins in the 18th century, and their status rose considerably when they were listed as part of the Eight Scenic Views of the Capital during King Jeongjo's reign. Perhaps because of this subjectivity, different scenic spots are chosen according to the political affiliation.

In the last lecture, we learned that a Southerner scholar named Gang Junheum wrote poems describing the attractions of Hanyang. He lived in the same period as Yu Bon-ye, and wrote Han'gyeongjabyeong (Miscellaneous Things of the Capital), which is a collection of poems describing various attractions of Hanyang. He chose about 40 places, most of which are scattered in various sections of Han'gyeongjiryak.

However, none of the attractions selected in relation with Jang-dong Gim clan in the section of Scenic Spots in Han'gyeongjiryak are mentioned in Gang Junheum's poems. This shows that even those who lived in the same era had different ranges of social relations and different attachments to and evaluations of places depending on their political affili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check out Yu Bon-ye's concept of a scenic spot. The scenic spots of Han'gyeongjiryak was not just landmarks, but places where renowned figures and people's actions were mixed. Famous landscapes and architectures in the city are scattered in various sections. Among them, what Yu Bon-ye picked as the 'scenic spot' was a place which was fused with people and their actions.

For example, Pilundae in the picture has traces of Oseong Yi Hang-bok and lots of flower trees, so, in spring, it became the busiest place with people rushing to see the flowers. The middle-class writers also brought wine and composed poems, bustling around, and the poems written in this way were called 'Pilundae Pungwol (poems).' It is not just a beautiful place but a scenic spot of Han'gyeongjiryak, where the history of people's traces and the culture of people's actions are mixed in.

And the author captured a sense of the season as well. As in this painting by Gyeomjae Jeong Seon, they watch flowers at Pilundae or Sesimdae in spring, see peach flowers in Buksa-dong in late spring, watch ssireum at Sandan on Dano, enjoy lotus flowers in Cheonyeonjeong, and play in the water in Suseong-dong valley in midsummer. And in autumn, they watch autumn leaves in Ssanghoejeong. Through these descriptions, you can imagine how people in the 19th century went around the places to enjoy each season in Hanyang.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scenic spots picked by Yu Bon-ye. The scenic spots he chose were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many places were around Gyeongbokgung Palace. The scenic spots selected here were not just the places with beautiful scenery, but the places where the history of the people who had been there and the culture that contemporary people enjoyed were mixed in. Therefore, the scenic spots of Yu Bon-ye naturally has a lot of places related to Jang-dong Gim Clan, who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Yu Bon-ye's family.



This session, we explored the locations of famous scenic spots in Seoul that Yu Bon-ye picked and their characteristics. Next session, we will take a look at the section Each Dong that describes the traces of great men who had been in Seoul.



8-4

Seoul, Where the Traces of Great Men Are Hidden

Hello, students. Last time, we explored the locations of famous scenic spots in Seoul that Yu Bon-ye picked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 scenic spots he chose was not just a place with excellent scenery, but a place with which the traces of renowned figures and contemporary culture were combined, and has a tendency to be concentrated in the area related to Jang-dong Gim Clan. The fact that many places in the capital city became the subject to be appreciated in great detail was a change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when the space outside the city wall was considered scenic.

This time, we will explore the section of Each Dong that describes the traces of great men who had been in Seoul.

Gak-dong means each dong, and it deals with various areas in Hanyang. This is a section that only exists in Han'gyeongjiryak like the section Scenic Spots. Dong is a very familiar administrative unit for us. But, in Joseon, 'dong' was not an official administrative unit.

Hanseongbu was largely divided into five bu including Jungbu (center), Dongbu (east), Seobu (west), Nambu (south), and Bukbu (north), and there were about 50 bang under it. For example, Jungbu was divided into several bang such as Jeongseonbang, Gyeonghaengbang, Gwaninbang, and Sujinbang. However, at some point, various neighborhoods in Seoul began to be called 'dong.'

In that the customary name that people began to use is set as the title of an independent section, Each Dong clearly shows the author's detailed knowledge and the quality of information about Seoul. Another feature of this section is that it has a lot of firsthand experience and unofficial stories, and in this respect, it can be evaluated as showing the essence of Han'gyeongjiryak.

In the first part of Each Dong, the author explains where the word 'dong' originates. It's a conventional name, so people would be curious about its origin, right?



The author says that the word 'dong (洞)' literally means cave, but he thinks it is not used with this meaning. He goes on saying that in China, streets are called hodong (胡同) and sometimes the letter 'dong(衙),' meaning street, is used for this word, so the word dong was probably derived from 衙. And he puts an annotation under the title of the section, which says the meaning is similar to the letter 'ga (街),' another letter for street.

In this section, about 70 entries are listed to explain several dong. Although they are listed without any particular classification, if you look at the order, the list starts from Jungbu, goes on clockwise to Dongbu-Nambu-Seobu-Bukbu, and finally covers several areas outside the city wall. About two-thirds of these 70 areas contain historical sites related to famous figur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Jungbu, a total of five dong are included, and Naenongpo is the only one that does not talk about a person.

In the case of Dongbu, all five entries are related to people. All of the areas have stories of famous figures except for one place, Hongdeokjeon, where the story of King Hyojong and a court maiden Hongdeok took place. When Hyojong was in Shenyang, Hongdeok was also taken prisoner there, and she is said to have made great gimchi and offered it to Heojong.

After King Hyojong's accession to the throne, she also paid her ransom, returned home, made gimchi again and offered it to the king through another maiden, and the King recognized the taste and awarded her with a little field here as a prize, which was called Hongdeok-jeon. That's why the dong name ends with jeon.

Nambu introduces the most areas, and among the 26 dong presented, except for Howicheong-dong, Sogong-dong, Yahyeon, Chojeon-dong, Jukjeon-dong, Donghyeon, and Piran-dong, all have historical sites related to special people. Sogong-dong is where Nambyeolgung (Royal Villa in the South) was located, and the book says that a residence of Taejong's princess was originally here, so there is some talk of historical figure.



Among the six dong presented under the entry of Seobu, all except for Jeong-dong have people related historical sites. As for Jeong-dong, it says that the name comes from Jeongneung, a royal tomb of a founder of Joseon, and Jeongneung is the tomb of Queen Sindeok of Gang clan, the queen consort of King Taejo, so it would be wrong that there is no story of a person at all. If so, all the dong have historical sites related to special figures.

All the 11 dong of Bukbu have historical sites related to famous people except for Palpan-dong and Nugak-dong. Among them, Nugak-dong is described as a place where only bunch of middle class people and no aristocrats live, showing a strong sense of class discrimination.

Several dong outside the city wall are similarly described. Of the 16 areas, except for Wangshimri and Gomacheong-dong, all have historical sites related to special people. As such, the section Each Dong is basically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ical sites of famous people, so it can be seen that Hanyang is explained as a place where the traces of wise men are hidden everywhere.

Let's take a closer look at descriptions of Each Dong. Each item explains first the approximate location or origin of its name and then describes the famous historical sites there. Let's take Sujin-dong for example. "Sujin-dong was named after its bang, and has the shirine of Mogeun Yi Saek, so many of his descendants and Confucian scholars come to participate in the ritual every year." The name Sujin-dong is derived from Sujin-bang, and the shirine of Mogeun Yi Saek described here still exists. The portrait of Yi Saek on the right is a painting housed in the shirine. It is difficult to know that there are many descendants or Confucian scholars participating in the annual rituals at shrine of Mogeun without the experience of Yu Bon-ye, a resident of Seoul.



This shows that his knowledge and experience was reflected a lot in Each Dong section. The commentary of Sujin-dong also describes common hearsay that there was a site of Jeong Dojeon's house. "Commoners say that Jeong Do-jeon's house was located in Sujin-bang, so today's middle school is the site of his academy, Jeyonggam is the site of the main house, and Saboksi (Office of the Royal Stable) is the site of his stable. They say Jeong Dojeon knew how to assess the land, so he chose a place to put thousands of horses in."

Beyond the location of Jeong Dojeon's house, he knows all the specific myths, such as where the site of his academy is and where the site if the main house is. He even tells us that Jeong Dojeon knew how to assess the land, so he chose a place to put thousands of horses in, and later it became the site of Saboksi, which manages and raises horses.

The following is another example that shows his knowledge.

Hoehyeon-dong is located under Namsan, and the name of the dong also comes from its bang. There is an old house of Munikgong Jeong Gwangpil, and his descendants have lived there for generations now. A possessed man once said that the ginkgo tree in this house would have 12 Seodae (horn belt), and quite a few people from this family became ministers, but people say there are still some Seodae left. The house that Yangpa Jeong Taehwa lived is also in this dong. In the past, it was a house with only one drawing room, and the brothers, even after both of them became ministers, stayed together and did not know that it was small. Also, the main house is the room where Cheongeum Gim Sangheon was born. People have remembered it until now so they dare not change its old shape. Also, the house of Ildu Jeong Yeochang is located in this dong, so his descendant receive the household tax from its residents every year.

Seodae is a belt worn by a minister. The statement that 12 seodae will be hung in the house of Jeong Gwangpil is a prediction that 12 people from this house will become ministers. Perhaps because of this prediction, many people from this house became ministers, but they are not 12 yet. I think there were a lot of talk about this in the neighborhood.





Only those who knew this neighborhood well enough would know the story of the Jeong brothers who lived in a small house even after they both became ministers, and that their main building was where their grandson Gim Sangheon was born. Moreover, it would be impossible to know the information that the descendants lend the house to others and receive the rent, unless you are from Seoul and hear the news of the neighborhood.

In addition, when he points out that the house is Gim Sangheon's birthplace, you can read a feeling of reverence for him. Just as the Scenic Spots section has many entries related to Jang-dong Gim Clan, we can see that the story of Andong Gim Clan of Jang-dong is described in a very reverent tone in each item.

Like Kyujanggak, which Yu Bon-ye loved, was described in various sections, Jang-dong Gim Clan's historical records appear in descriptions of various items. For example, Cheongpunggye is described in the Jangui-dong section as the house that Gim Sangyong lived in, and Gim Sangyong's pavilion and shrine here are covered separately in the Taegojeong section. It says that there are engraved letters 'Daemyeongilwol (Great Ming is like the sun and the moon) Baeksecheongpung (Clear wind blows for hundred years)' in this place, but only 'Baeksecheongpung' remains now.

Among the various areas in this section, Boeundan-dong accounts for the largest part. It's also called Mijang-dong, and here the author quotes a very long passage from Tongmungwanji (Compendium of the Interpreter's Bureau). It is the story of Hong Suneon, an interpreter.

One day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he went to a Gisaeng (female entertainer) house in Ming during his personal trip and met a woman who lost her parents and came out to pay for the funeral. Hong Suneon, hearing this, did not take her, but gave her all the money he had to pay for the funeral, showing his righteous spirit. Then, when this woman later became the second wife of the Minister of Rites Shi Xing and told her husband about this story, he was very impressed.





Later, when Hong Suneon came to Ming again as an interpreter, Shi Xing helped a lot to solve various diplomatic problems of Joseon. Especiall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he was opportunely the Minister of War, which was very helpful to send reinforcements to Joseon. The name of this neighborhood became Boeundan-dong because the woman presented Hong Suneon with a mother-of-pearl box containing 10 rolls of colorful silk, and the two letters 'Boeun (repaying kindness)' were embroidered at the end of the silk.

This story is presented in several books, including Yeollyeosilgisul (Narratives of Yeollyeosil) as well as Han'gyeongjiryak. It means that the story must have been famous and loved by people at that time. This shows that 'Loyalty to Ming,' the argument that Joseon should keep loyal to the Ming Dynasty because it was able to survive only with the help of Ming after the devastating defeat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was still a popular narrative.

Han'gyeongjiryak also contains places related to Ming or the Japanese Invasion. The Changdeokgung Palace section describes Daebodan, where they held a memorial service for the Ming emperor, and the Shrine section describes Minchungdan and Seonmusa, where rites for the Ming's generals and soldiers who di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were held, and Eastern and Southern tombs of Guan Yu, which were built at the request of Ming's generals during the war.

In the section of Each Dong, about two-thirds of the 70 entries explain who lived there, what relics they left behind, and what stories they had. Among them was Gyoseogwan-dong, where his family lived.

Gyoseogwan-dong was also called Un-dong because Gyoseogwan was here in the past. It is the site of the former general Im Gyeonggeop's house, and the statue in Bugundang (neighborhood shrine) of Ungwan (Office of Astronomy) is said to be General Im. My family lived in this dong for a long time during King Jeongjo's reign, and this is why my father chose Goun as his pen n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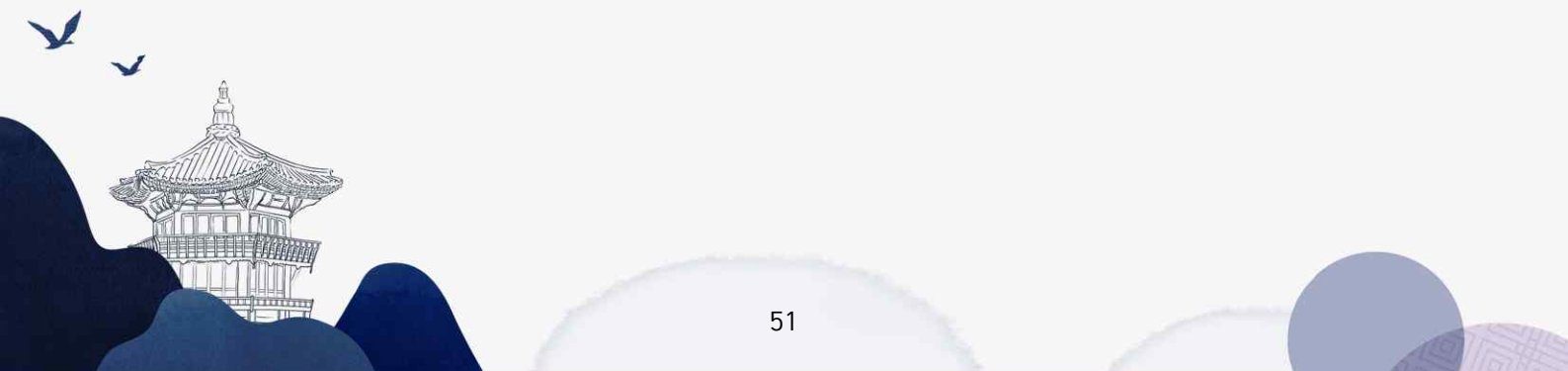
Im Gyeongjeop was revered as a symbol of loyalty to M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General Im, who lived during the period of the Later Jin Invasion and the Qing Invasion, was eventually executed for attempting to help the Ming Dynasty restore the China, even though he was defeated in the Qing Invasion. Especially since King Sukjong's reign, there was an active re-evaluation of Im Gyeongjeop.

The pride of living side by side with the great people who had been in Seoul was revealed in the description of the neighborhood where the site of Im Gyeongjeop's house was located. Moreover, the description that his family's house was in the neighborhood of Gyoseogwan, a government office in charge of publishing books, and that his father's pen name originated from it, has the effect of giving a kind of historical inevitability to the current vocation of his family, who was doing similar work as Kyujanggak editor-compilers.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section Each Dong, one of the sections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Han'gyeongjiryak are most visible. Yu Bon-ye considers Seoul as a significant place where great people lived, which also shows the ideological and cultural status of the capital at the time.

However, Seoul in Yu Bon-ye's time was not necessarily filled with traces of such solemn and great figures. It also had the characteristics of a busy and bustling city, which was not well portrayed in the book.

Next time, let's compare it with Hanyangga, which was popular at that time, and extract some more characteristics of Han'gyeongjiryak.





8-5

Hanyang Portrayed Differently by Han'gyeongjiryak and Hanyang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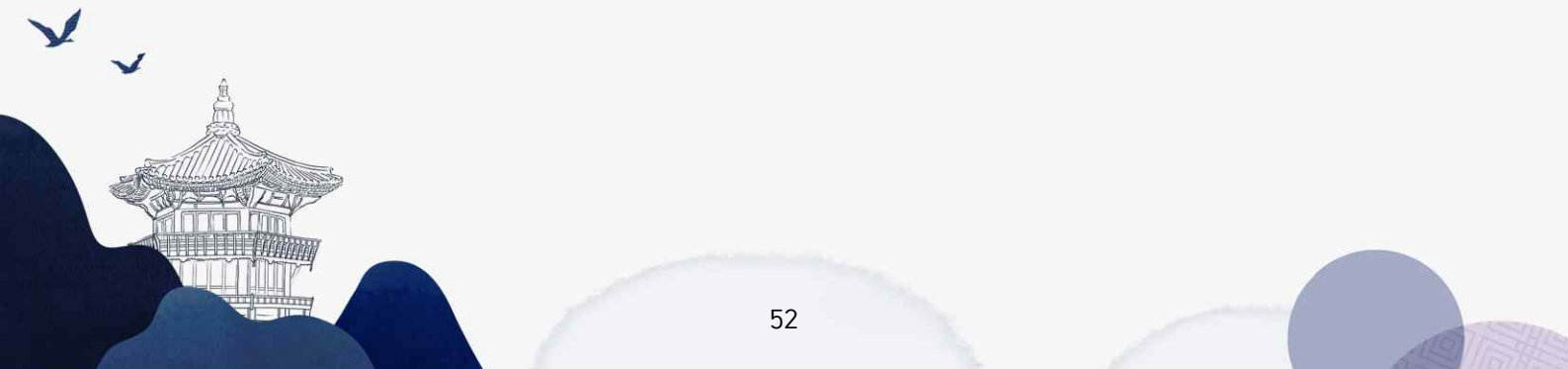
Hello, students. Last time, we looked at the section Each Dong, one of the sections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Han'gyeongjiryak are most visible. We learned that it contains the history of famous figures in almost every entry, and the author's experience and specific knowledge are very well reflected.

This time, let's compare it with Hanyangga, which was popular at that time, and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Han'gyeongjiryak more closely.

In the 19th century, when Yu Bon-ye wrote Han'gyeongjiryak, another work dealing with Hanyang became popular. It was a Korean prose-poem known as Hanyangga, and here we will explore how the two works of the same period portrayed Hanyang differently.

Hanyangga is a Korean prose-poem that is said to have been created by Hansan'geosa. It is not known who Hansan'geosa is, but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he is an official of Aekjeongseo (Office of Royal Errand). Aekjeongseo is an institution in charge of miscellaneous affairs in the palace, and this prose-poem has very detailed description of the appearance of its officials and their pastime activities.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 prose-poem was written by a former official of Aekjeongseo with a pen name Hansan'geosa.

Hanyangga is a long prose-poems with about 704 lines when four meters are set as one line. The left side of the screen is a manuscript, and the right side is a woodblock print. Both of them starts with the creation of the world. "The sky and earth opened and the sun and the moon came out. The stars blazed and became five elements."





I made a simple table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orks, Han'gyeongjiryak and Hanyangga. First of all, Han'gyeongjiryak is believed to have been written between 1830 and 1842, and Hanyangga is believed to have been written in 1844, so both depict Hanyang roughly at the same time. Just as Song Sinyong, a chaekkoe (book dealer), and Garam Yi Byeonggi were involved in the transcription of Han'gyeongjiryak, Hanyangga was also published by Song Sinyong as an annotated version, and Yi Byeonggi wrote a thesis on it.

Yu Bon-ye, the author of Han'gyeongjiryak, was a former editor-compiler at Kyujanggak and a person with a clear sense of identity as a noble man, even though he was a descendant of an illegitimate son. I have mentioned that Hanyangga is presumed to have been written by a former official of Aekjeongseo, and officials of Aekjeongseo cannot be classified as aristocrats. Although they are of different status, they both worked in the palace.

Han'gyeongjiryak is a prose written in classic Chinese, and Hanyangga is a verse in Hangeul. This difference in genre seems to have had a lot of influence on the popularity of these works. There are only about four or five manuscripts of Han'gyeongjiryak, but not many were copied during the 19th century, and at least two were definitely copied after the 20th century.

On the other hand, Hanyangga is present as woodblock prints and as manuscripts as we saw earlier, and the woodblock prints were published in 1880, and it seems that several editions were made. Considering that Hanyangga was not published by the state, it means that it was quite popular among people and many vendors rushed to do the business.

Perhaps because both authors worked in the palace and frequented government offices, the stories of palaces and government offices take up many pages in both works. Han'gyeongjiryak devoted almost half of the book to describing the offices inside and outside of the palace, and so did Hanyangga. However, even if they describe the same palace and government office, the focus is different. Let's take a look at a passage from Hanyang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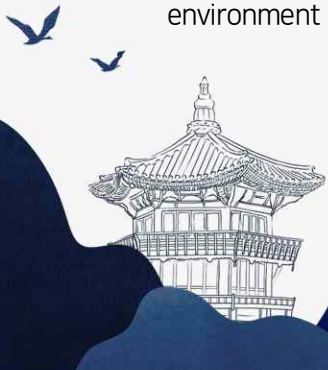




The sturdy man of Muyecheong (Office of Martial Arts) is brave in a purple military uniform with a navy belt as he insists on having eighteen artistic skills. At night, he sits on alert in a leopard hood and a leopard uniform, holding a cudgel, and he becomes a soldier escorting the king. But the stylish Aekjeongseo official is still young. Proudly wearing red clothes, purple hood, and a wide navy band on his chest, he nicely pins the bright gold donggot (top-knot pin) with the letter dae (big) carved on it. ... All the court maidens take care of their own business. In the innermost place, they take charge of sewing, embroidery, desserts and meals of various offices. So they visit them every morning and evening, asking around the size of the clothes, and doing duties of needlework, royal meals, and rituals. The old Musuri(palace maid) has a small chignon and wears a long jacket and a wide band of dark blue cotton with a nameplate across the shoulder. Slaves in each palace wear beongeoji (military slave's hat) with wide string and dark navy robe with long sleeves. Naebyeongjo (In-house War Office) Soldiers guard every door forbidding an outsider, with a leather whip in hands, Running this way and that, their spirit is wild.

Hanyangga describes in detail the soldiers of Muyecheong, the officials of Aekjeongseo, and the court maidens, as well as the Musuri and the slaves that work in the palace. It even describes slaves' attire, saying that they wear a bucket hat and a long-sleeved dark navy robe. Meanwhile, the literati officials working in the palace are subject to cursory description. Only Seungji (Royal Secretary) of Seungjeongwon is explained a little, and as for the officials of Hongmun'gwan (Office of Advancement of Literature) or other in-house offices, or Hallim (Court Scribe) of Chunchugwan (Bureau of State Records) only the titles of the government posts are mentioned once.

On the other hand, Han'gyeongjiryak puts more importance in describing literary institutions such as Seungjeongwon, Hongmun'gwan, and Chunchugwan, and places where literati officials frequented, such as Daechong and Bincheong (Conference Halls). In the case of Kyujanggak, it contains a lot of stories as if it were the main subject in Changdeokgung Palace. Stories during King Jeongjo's reign,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and eve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the taste of water in the well are explained in detail.






While the story of the space related to editor-compilers was so detailed in Han'gyeongjiryak, Hanyangga does not even mention them. You can tell that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of Kyujanggak editor-compilers comes only from the personal experience and status of the author himself.

Meanwhile, there are no women who work in the palace, such as court maidens or Musuri, in Han'gyeongjiryak. In this respect, you can see that elites like Yu Bon-ye were distancing themselves from the women who worked in the palace. The higher the status, the more distance was kept between men and women.

Different interests of the two authors read the same space differently. Okryu-dong and Songseogwon are the most exemplary cases. The two places are located very close to each other at the foot of Inwangsan Mountain, and the water flowing through the rocks created a wonderful view, making them famous as scenic spots in Hanyang.

Okryu-dong, had Cheonghwigak Pavilion of Gim Chang-hyeop's family of Andong Gim Clan, and in Songseogwon (Pine Rock Garden), Songseokwon Poetry Club used to hold a meeting led by Cheon Sugyeong, an 18th-century middle-class poet. This Poetry Club is known as the evidence of the prosperity and literary achievements of the middle class at the time.

What's interesting is that Yu Bon-ye, living in the same period with Songseogwon Poetry Club, does not mention it at all in Han'gyeongjiryak. He only describes Okryudong and Cheonghwigak. Hanyangga shows that the author was not very interested in this kind of literary achievement because neither Gim Chang-hyeop nor Cheon Sugyeong was mentioned. However, both Songseogwon and Okryu-dong appear as good places to play, indicating that he was aware of Songseogwon.



18th-century painters Gim Hongdo and Yi Inmun left paintings of poetry club meetings held in Songseogwon. Considering this, this kind of gathering at Songseogwon seems to have been quite famous. Perhaps Yu Bon-ye knew this information. However, it was not selected for Han'gyeongjiryak.



In Hanyangga, the name Songseogwon appears, but poetry is never mentioned, and it is described only as one of the good places to play. This shows that Yu Bon-ye and Hansan' geosa paid attention to different places in Hanyang even though they lived in the same period. Also, you can see that Gim Hongdo or Yi Inmun, who painted Songseogwon Poetry Club, were still different from them.

Gim Hongdo's Songseogwon Sisayayeondo (Nightly Gathering of the Songseogwon Literary Club) is said to have been painted by a commission from Gim Euihyeon, who served as a clerk of Kyujanggak, and who participated in this gathering. Therefore, his painting captures Songseogwon Poetry Club member's own view. Songseogwon case shows that people living in the same era, their perceptions of a place can be different.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descriptions of entertainment. In Han'gyeongjiryak, the description of entertainment is limited to flower viewing or poetry reading. All that it tells you about any entertainment that common people would have enjoyed is ssireum in Sandan. However, Hanyangga describes Seungjeon Noreum (Promotion Game), which was enjoyed by Byeolgam (Assistant Director), in detail.

The place where the game takes place is Gunjajeong Pavilion in Bugilyeong (The 1st North Military Command). It is a game played by fully dressed officials under an awning, with lamps lit and various objects arranged, and even with musicians and gisaengs invited. This part is so long that it not only illu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 in Hanyangga, but also provides a clue about the identity of the author.

On the other hand, the name of this Gunjajeong Pavilion appears in Han'gyeongjiryak, but it only says that it is a pavillion to shoot arrows and Jo Hyeonmyeong wrote its signboard. This is whe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records is clearly revealed.





Hanyangga wins a landslide victory for th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arket, as well. Han'gyeongjiryak lists the names stores such as Myeonjeon (Chinese Silk Store), Myeonjujeon (Domestic Cloth Store), Pojeon (Hemp Store), Jijeon (Paper Store), and Eomuljeon (Seafood Store) and dryly explains what they sell. For example, in the case of Myeonjeon, it says, "It is called Myeonjeon or Ibjeon. It's called Ibjeon because they sell things while standing. They sell Chinese silk." After introducing the stores, which belongs to Yukuijeon (Six Licensed Stores), it only adds, "All the above mentioned markets are located in Jongga, and they are also called Yukuijeon. Commoners also call them Yukjubijeon."

On the contrary, the description of Yukuijeon in Hanyangga is very lively from the very beginning. "Across the big Gwangtonggyo Bridge, here is Yukjubijeon. The broker who knows the work and the merchant in charge of the goods are wearing a large coat and a hat or a light coat with long sleeves. How frivolous they are calling people and bargaining with them," it says, describing the noisy market first.

Another interesting point is that Han'gyeongjiryak refers to the market as Yukuijeon and adds a comment on commoners calling it Yukjubijeon, but Hanyangga, a prose-poem written by a commoner, calls it Yukjubijeon from the start.

Living in the sam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two authors saw Hanyang differently. Hanyangga celebrates the bustle and splendor of the city and depicts a variety of Hanyang people, from the lowest-class slaves to Musuri, court maidens, merchants, waljja (roughnecks), the middle class to the aristocrats.

On the contrary, Han'gyeongjiryak deals only with a very limited group of people through historical sites related to great figures, as we saw in Each Dong section. In terms of popularity, Hanyangga won a complete victory. The book was published in woodblocks by many willing merchants since 1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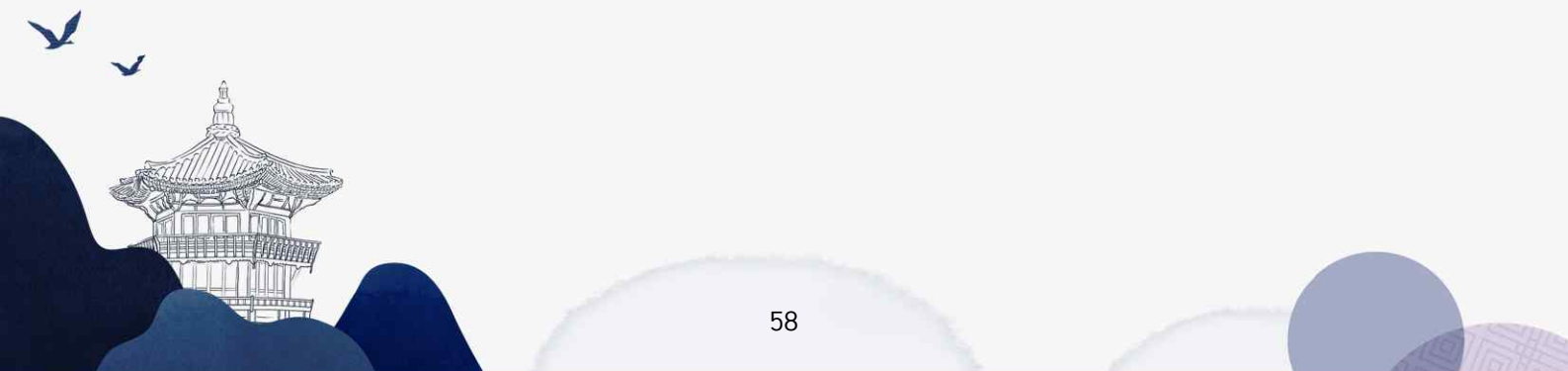
As for Han'gyeongjiryak, contrary to Yu Bon-ye's hope that it would be used as material for a revised edition of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it did not see much light until the 20th century. But, through these differences of the works created in the same period, we can grasp the multifaceted city of Hanyang in the 19th century in various ways.

So far, we have read some of the actual text of Han'gyeongjiryak and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book. It has detailed information that is hardly found in other materials, available only because the author, Yu Bon-ye, was a resident of Hanyang, which confirms the value of this book as a material portraying the 19th century Hanyang. However, by comparing it with the contemporary popular prose-poem Hanyangga, we can confirm that the world contained in Han'gyeongjiryak is only a part of Hanyang at the time.

The 19th century Hanyang is also the last state of the capital city of Joseon that we can trac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old traces and information amid the rapid changes of modernization, and it could have been even more inaccessible without the documents such as Han'gyeongjiryak left by Yu Bon-ye.

Although it was not used in the production of a revised edition of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ram, his book is now used as a basic text for researchers who want to find and develop the locality of Seoul. In that sense, we can say that Yu Bon-ye's wish came true a century l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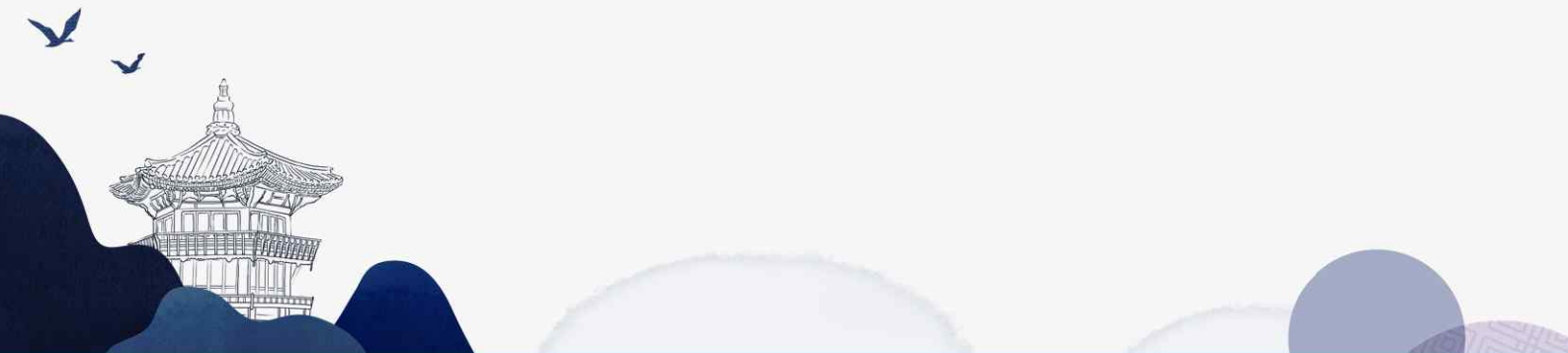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This is the end of the lecture on Han'gyeongjiryak.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8周

解读《汉京识略》

8-1

柳本艺喜爱的奎章阁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古典新读》之《汉京识略》课程主讲的张志連。这节课是我们的第八节课,以“解读《汉京识略》”为主题。我们这节课的内容是上一节课“《汉京识略》的理解”的后续篇。

我们上一节课学习了《汉京识略》的整体特征和作家柳本艺的相关内容。在16世纪完成《新增东国輿地胜览》撰写后,直到《汉京识略》的出现,在此期间都没有专门以汉阳为主题的地理志。《新增东国輿地胜览》大致展现出了朝鲜前期的风貌,而《汉京识略》这部地理志作品则展现出了朝鲜后期汉阳的风貌。

在这本书出版一个世纪后,随着新的文化事物的引入,汉阳这座城市发生了很大的变化。考虑到这一点,这部地理志记录了发生变化之前的朝鲜的风貌,这大概也是这部作品的意义所在。

上节课我们讲过,尽管这本书采用的是地理志形式的比较生硬的文风,但在这部作品中充分体现了柳本艺的个性。

这种个性主要体现在以下这些方面,虽然出身于庶子之家,但对于以父亲柳得恭为代表的父子三人曾历任奎章阁检书官,以及自己是土生土的首尔人这点而感到自豪,士大夫和同类意识等等。在信息的取舍方面,反映了起父亲柳得恭与朴齐家和朴趾源等人深厚的交情。并且,其曾提及自己经常出入老论派名门壮洞金门相关的场所。

虽然柳本艺以《新增东国輿地胜览》这本书作为基础参考,撰写了这部作品,但是突破了原有的形式,赋予了作品独特的结构形式。朝鲜后期发生变化的信息,是以《东国文献备考》为基础进行参考撰写的。

并且文中也出现了各种野史和只有身为首尔人才能拥有的见闻内容。在《新增东国輿地胜览》中,几乎没有出现诗文的内容,而且也没有出现户口或特产物等实用性的信息。这部作品也不是以实用性为目的的地理志。由此可见,这本书还是以文化教育为主的地理志作品,与作者自身的士大夫和同类意识有较大的关系。



同时，这本书展现了汉阳的许多场所，在叙述上采用了描写的方式。而这种特征在同一时期的《城市全图》和《城市全图诗》这两部作品中也可以看到。现在，我们一起来读一下这部作品的内容，看看这种特征是如何通过叙述展现的。

首先我们简单地看一下《汉京识略》的目录和结构。在项目的内容中，我们看到了许多令现代人感到陌生的用语，我们先针对这部分做一个说明。天文，是指汉阳属于哪个星座位置，还有汉阳的北极高度。做一个简单的比喻，有点像我们现在说的经纬度这个概念。

形胜，用现在的话来说就是地势，而宫阙就是我们想到的景福宫、昌德宫这些宫。宫室则与之不同，是指国家搭建的官方空间。即，像太平馆等外交空间，或者很多汉江边的亭子也属于这个范畴。

有人可能会问，难道亭子不是娱乐空间吗？虽然这种亭子也可以作为娱乐空间，但其实是君主出巡或使臣游览为目的建设的官方空间。

坛壝是指像社稷坛一样，以单一形态存在的祭祀场所。庙殿宫这个项目，是指以宗庙为代表的皇室祠堂。墓是等级最高的，其次是殿，最后是宫。在朝鲜时期，这种名称都有等级之分。

苑囿是指宫阙的后院。宫内各司，是指位于宫阙内的多个官署；宫外各司，是指位于宫阙外的多个官署。官署是指议政府和六曹这种机构。驿院是指驿和院，即位于交通要道上的主要场所，但相关的内容并不多。

桥梁就是桥，山川是指三角山、仁王山、沙岷和汉江等主要的山与坡和江河与溪流。形胜是指汉阳的整体地形，而山川部分则只解释说明了那些值得一提的山川。名胜是指风景优美，适合游玩的地方。各洞是指汉阳城内的许多的洞。最后市廛是指部分对于以六矣廛为代表的各种店铺进行了说明。

这种篇章下面会有项目，如果下面有细项的子项目，会使用圆圈进行区分标注，进行内容叙述。一般普通项目的结尾部分，作者会有批注一句表达个人观点的句子，也被称为“按设”或者“近言”。就像现在这个资料里看到的这样。

现在来看看具体的叙述部分。我们先来看看他对于曾担任奎章阁检书官的生平经历和自豪感给他的叙述带来了怎样的影响。



在上节课我们曾提过，在《汉京识略》中，与奎章阁相关的内容比重非常大。与奎章阁的相关内容，不仅收录于宫阙篇章的昌德宫部分，在各司的昌德宫内各司部分也出现了相关的叙述。作为其中一个机构，在宫内的殿阁部分也进行了说明，同时也将其作为官署进行了说明。

对于奎章阁，不仅像这样进行了多次的说明，而且从整体来看，奎章阁部分的内容有相当大的占比。例如，我们看看昌德宫项目结尾的意见批注，黄色标识部分是和奎章阁有关的内容。就算是大概扫一眼，也可以看到这部分内容大概占了三分之二左右的比重。

这个批注引用了《奎章阁志》的内容，说明了设置奎章阁的来龙去脉。奎章阁的设置起源于世祖时期梁诚之的建议。到了世祖时期和肃宗时期，都没有形成一定的规模和制度，直到正祖时期，才正式地设立了这个机构。

作品中也提到了收藏于此处的《古今图书集成》。清朝的第4代皇帝康熙帝下了敕令，引入了大概上万卷的类书，所谓的类书，简单地说就是百科全书。这是现存的中国类书中，最大规模的藏书。正祖花了2000两银子，好不容易购买到这些书籍。

在《汉京识略》中，除了提到这个书籍的收藏之外，还具体说明了这些书籍的构成，甚至具体到了以箱为单位，总共收藏了几箱这样子。在作品中，说明了奎章阁的八景，考虑到正祖时期才初设了奎章阁，这个八景的历史也不长。但在作品里也出现了相关的内容，足以看出作者对奎章阁的喜爱之情。

考虑到这部分对于昌德宫的批注，是出于作者个人的理解。而且对于奎章阁的叙述内容占比很大，所以我们可以知道，对于柳本艺而言，昌德宫也是奎章阁空间构成的一部分。

在宫内各司的篇章中，也对奎章阁进行了详细地叙述。在画面上看到的，正是这一块区域，这部分是奎章阁的直院区域。直院是指大臣工作的地方。摘文院，大西斋和小西斋是主要的建筑物。在《汉京识略》中，基本上都遵循了下面的原则，没有加入诗文的内容，对于奇闻也只是保留了题目和作者。在测雨器和整经机上刻的文章都记录在了作品里，由此，我们可以再次确认关于奎章阁的叙述内容，在整体内容中占了一定的比重。

在这个地方的数个宫殿之中，小西斋应该是检书官值班的地方，也是对柳本艺有着特殊意义的地方。我们来看看作者对于这个地方是如何叙述的。





1795年正祖19年正月，君主在亲临人文院后，认为检书官值班的地方太狭小了。所以投入了财力在本阁进行修建，在以前的厅的旁边改建了小西斋。检书官朴趾源担任了这项工程的监工，该工程于同年9月竣工。正面5间，侧面3间，以板的形式搭建了墙壁，且没有使用泥土。东侧被命名为衿川，建造了楼阁，并且还建造了一个有溪水流出的池塘。背靠北岳山，西侧与南山相邻，在水边有漂亮的栏杆，风景十分好看。在君主亲临此地后，此处被视为御斋室，并得名小西斋。检书官需要值班，所以最后这个地方也成为了检书官值班的场所。

作品中提到正祖不仅对于检书官值班这件事很重视，君主还亲自在此处过夜，检书官在此处值班，也提高了这个殿阁的格调。作品中还特别记录了检书官受到正祖的优待这一点。

如果说正祖时期的故事是父亲时期的回忆，那么柳本艺自己直接亲身经历的回忆内容也被记录于作品之中。1826年纯祖26年，孝明世子为了大报坛的春季祭祀，曾在小西斋里面进行了斋宿。孝明世子在斋宿期间，以读春秋为题创作了一首五言八句律诗，不仅亲自写了这首诗，还挂在了墙上。作者还在奎章阁项目的批注中提到自己对这个作品进行了摹刻，并挂在了墙上。

这个匾额一直保存至今日。虽然在《汉京识略》中，并没有记录这首诗的内容，但因为这块匾额一直保存至今，所以我们还是可以知道诗的具体内容。听着春日细雨的声音，在自然风景之中，读着《春秋》，还有大报坛祭祀的意义也被记录在诗中。

除此之外，作品中还有一些作者个人的见闻，这些都是只有曾经在这里工作过的人才会有所见所闻。

在本阁有一对被驯化的鹤，它们是在黄海道沿岸过关后被引入的，在摘文院厨房里有鹤的饲料。在摘文院的院子里有一对槐树，是以前的总管李喆辅（1691-1775）种下的。20年前，东边有一棵枯死了，内阁提学履翁李晚秀因为自己是他的子孙，所以补种了一棵槐树。

在这里养鹤的故事，重新种树的故事，这些都是只有在这里长期工作的作者才会有的见闻。由此可见，作者对于这个空间十分喜爱。

今天我们学习了柳本艺和他的家人有怎样特殊的姻缘关系，以及仔细研究了《汉京识略》中对于奎章阁的叙述。



整体来看，对于奎章阁的叙述内容占比较大，有正确地描写出其面貌，以及作者对于此处的见闻也被记录在作品之中。作者不仅亲自记录，还记录得十分详细。而且与其他作品中记录的，对于奎章阁一带的描写内容一致，所以可以推测出记录的正确性较高。由于作者对于这个地方深切的喜爱之情，以及所知的信息较多，所以才使这一切成为可能。

今天我们学习了以柳本艺喜爱的奎章阁为主题的内容。下一节课，我们将从只有首尔人才能写得出来的详细信息这个角度，来进一步研究解读这部作品。





8-2 只有首尔人才能写得出来的详细信息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柳本艺喜爱的奎章阁。我们了解到了在他的作品中出现了大量和奎章阁有关的内容，并且对于奎章阁展开了详细且准确的描写。这节课我们学习的主题是“只有首尔人才能写得出来的详细信息”。

柳本艺作为土生土长的首尔人，有自信能够写好关于首尔的文章。实际上，这种详细信息在《汉京识略》的多处内容中都有所体现。在作品中有对于首尔的水的描写内容。

在汉阳都城中，有很多从白岳、仁王山、南山和骆山等几座山流下来的小溪。这几条溪流在首尔的中央汇聚成川流，即清溪川，像首尔的东边流去。16世纪编撰的《新增东国舆地胜览》这部作品，并没有对都城内多条的支流进行说明，但在《汉京识略》中，对于都城内的溪流都逐一进行了记录。

叙述的顺序是以清溪川为基准进行划分，对于北部地区的小溪，起源于北岳和鹰峰的支流，按照由西向东，从上游至下游的顺序进行叙述。对于南部地区的小溪，起源于南山的支流，按照由东向西的方向进行叙述。最后，还提到了都城外的溪流，起源于仁王山和母岳的支流，甚至还介绍了箭串桥。

不仅对很多的支流进行了说明，甚至对于每条支流上面的桥也进行了说明。在《新增东国舆地胜览》中提到的桥的座数不超过二十座。除了永渡桥、济盘桥、青坡新桥，京库桥，弘济桥等桥梁之外，其余都是都城内的水路。除了松川桥之外，所有的桥梁都位于河流的干流上方。

但是《汉京识略》对于支流的桥梁也全部做了记录，多达50座。对于桥梁的叙述顺序，沿着从上游到下游的方向进行叙述。从第一条白云洞川开始，到松坡江为止，对支流的桥梁进行了逐一的介绍。括号中的名称是那条桥的别名。柳本艺对于他是备注这些别名的方法也进行了叙述。

例如，照片里的白云洞川的新桥，又叫做河梁桥，因为以前河梁卫住在旁边，所以取了这一个名称。这种详细的信息，如果不是首尔人的话根本不可能知道。但是这种信息，也有可能是坊间流传的民间传说，也有可能是不正确的说法。对于这座桥名称的由来，以及河梁卫究竟是一个怎样的人，在其他的地方并没有找到相关的信息在《汉京识略》中提供的这种信息，比起探究其准确性，倒不如说这是一种了解19世纪首尔人接触到的信息的途径。



我们把《汉京识略》中对于桥梁的叙述，和地图比较一下看看。这是18世纪魏伯珪创作的《汉阳图》。可以把他当作是比柳本艺早一个世纪的人物。此人作为一个默默无闻的书生，在湖南的偏远地区度过了一生。可能因为他的生平经历，他心目中的汉阳，基本上只有城郭和景福宫，昌德宫和昌庆宫，庆熙宫等宫阙，成均馆和文庙，还有市廛等场所。

在这个地图中，虽然也有水路的标识，但是基本上是不准确的。对于起源于南山，汇聚成川流的小溪，一条也没有标识。不仅如此，市廛和川流交汇的场所只标识了广通桥这一座桥，还有很多座桥没有被标识。没有标识道路，只标识了五部，也没有标识其下面的行政区域。

由此可知，他关心的领域仅限于城郭、宫阙或市廛行廊等几类汉阳地区具有代表性的建筑物。因为是士大夫出身，所以其关心的机构可能也仅限于成均馆。在此基础之上，他无法获得更为详细的信息，所以也不可能撰写出更具体的内容。而柳本艺则与他不同，仅仅从桥的名字这一点来看，柳本艺所知的信息也超过了50座桥，而且还知道这些桥的别名。

作品中的水井和泉部分的内容，很好地展现出了这部作品对于这种细节知识的运用。水井和泉水这个项目在《新增东国舆地胜览》或《东国文献备考》里并没有出现。我们来看一则对于水井的说明内容。

尾井位于敦义门的外面。这口井水的品质上乘，仅次于训练院的通井，位居第二。井水充盈，即使是严重干旱的时期也不会枯竭，在民间也将其称为哨里井。在韩语中，哨里是尾巴的意思。井水流动，留有尾巴，大概是基于这层意思，才得名哨里井。井水清甜，十分清澈，但看起来染上了些许颜色，大概是因为其周边有一些染坊吧。

如果不是首尔人的话，是绝对不可能知道像井水味道的品鉴，对于其特征的说明，井水名称的由来这些内容的。对于哨里井有十分有趣的记载资料。18世纪上旬，一个名为李运永的人，创作了一首通俗易懂的歌词作品。

我们是白龙，守护西边盘松坊铜铺边上的八角亭下方有一处天赐的壶穴，经过了三百年后，龙摇动了一次尾巴，味道甘冽的水源随之涌现，在世间关于哨里井有这种说法

从这首作品中可知，哨里井取意于尾巴一词，是因为它就像守护我们都城西部的白龙的尾巴一样，这口井的地理位置和形状使我们联想到白龙的尾巴。对于哨里井这个名称的由来，也有不同的说法，但从李运永把井的介绍写成歌词作品这一点来看，这口井在汉阳当地也十分有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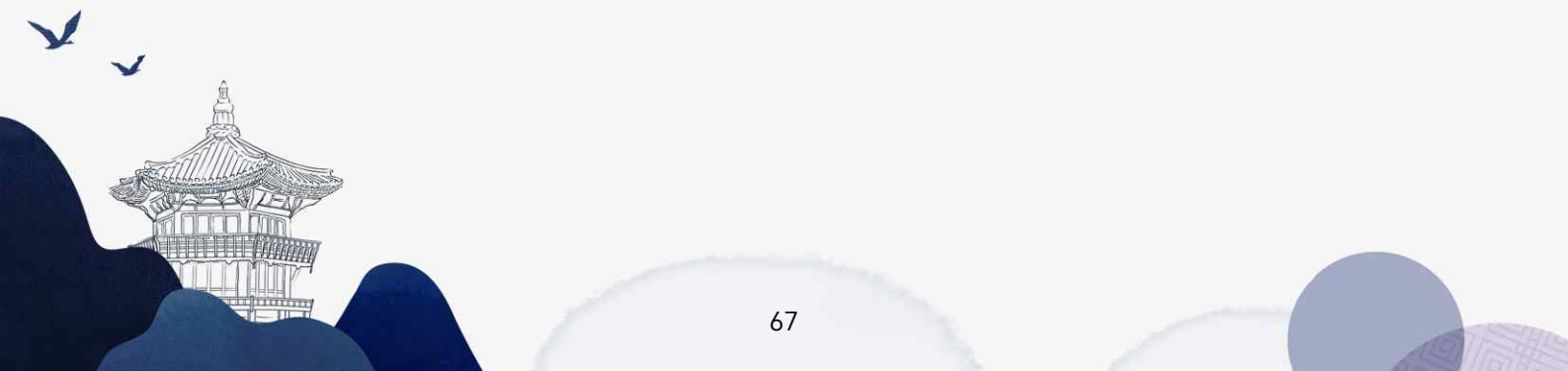
对于药泉的叙述也十分有趣。在都城周边的泉眼中，有两处泉水因为传闻具有药效，所以颇具人气。一处是在敦义门外的药泉，另一处是在彰义门外的玉泉庵，在作品中对于这两处泉水的介绍内容如下所示。

药泉位于敦义门外慕华馆的西侧。在山谷之间有一块岩石，名为恶岩。在夹缝之间，有泉水流动，此处的泉水对腹痛或腹泻症状有一定的治疗效果。每年夏天，拿着水瓢，前来畅饮的人十分之多，人数甚至多到，一天的水流量都无法满足前来饮水的人的需求的程度。在彰义门外，汉北门旁，有一座名为玉泉庵的寺庙，在岩壁缝隙之中有泉水流出。此处的泉水对于风疾和食滞症状有神奇的治疗效果。传说如果患有眼疾的人用此处的水清洗了眼睛，那么眼疾也会痊愈。玉泉庵的佛像是由山上的岩石打磨而成，被称为“海水观音”。药泉就在附近，有不少首尔人特意前来寺庙此饮用药泉的泉水。为了喝更多的泉水，他们还会提前吃一些很咸的食物，他们会在此喝一整天的水，直到肚子饱到再也喝不下为止，据说这样才会有效果。

人们为了饮用更多的药泉水，所以会先吃一些很咸的食物，这一点也十分有趣。而由山上的岩石打磨而成的海水观音佛像也一直保存至今。长度超过5m的高丽后期的摩崖菩萨像，也被选定为重点文物。

我们来看看在《汉京识略》中，身为土生土长的首尔人的柳本艺，他的细节知识是如何通过《汉京识略》来体现的。作者不仅罗列了首尔城内大大小小的桥，还备注了桥的别名，还对井水的味道进行了品鉴，甚至还出现了反应该场所人气情况的具体描写内容。由此可见，作者对首尔的信息掌握得十分细致具体。

下节课我们将一起探究，对首尔拥有着丰富认知的柳本艺，认为可以被称为名胜的地方在哪里，以及这些名胜具有怎样的特征。





8-3 首尔的名胜在哪里？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通过汉阳的桥梁和水井的篇章，我们可以知道柳本艺对首尔的认知十分细致深入，并在《汉京识略》中有所体现。这节课我们将一起学习首尔哪些地方是柳本艺认为的名胜，以及这些名胜具有怎样的特征。

名胜篇章，与各洞篇章相似，都是《汉京识略》中独有的篇章。所谓名胜，并不仅仅是风景优美的地方，而是有很多名人曾留下足迹的地方，所以这个篇章与各洞篇章的内容有很大的重复性。但是，名胜一般是指人们经常前往观光或游玩的地方，这是名胜独有的特点，也是其与其他场所的差异。接下来我们就看看哪些地方被作者认为是首尔的名胜。

对于收录于《汉京识略》中的名胜，我按位置进行了分类，如这张表格所示。一共收录了19个地方，其中城内有13个地方，城外有6个地方，城内的占比较高。我们看下城内的名胜，其中景福宫周边地区占了九处，对比其他地方具有压倒性的优势，而东侧地区和南山附近的地区分别只有两处。

对于城外的名胜，在南山，惠化门外，彰义门外，敦义门外，汉江等地区各收录了两处名胜，呈均匀分布的状态。这个情况与朝鲜前期有较大的区别，朝鲜前期的名胜大部分都在都城外，在汉江边或南山脚下。

15世纪，成俔编撰的《慵斋丛话》这部作品提到，在白岳山，仁王山和南山的清鹤洞等地方的风景都很优美，而在都城内风景优美的地方则比较少，他曾做出过这种评价。但是，19世纪，在《汉京识略》中记叙的情况则是，在城内，特别是白岳山脚的景福宫周边有不少的名胜，从这一点来看，两个时期的名胜分布差异比较大。

15世纪，城内的风景还未被当时的人们作为观赏的对象。而在朝鲜后期，城内被细分成很多个区域，所以城内也出现了很多游玩的场所。因此，人们对于名胜的认知也有所变化。

我们来细看一下在《汉京识略》中收录的项目，如这张表格所示。景福宫周边有弼云台，桃花洞，幽兰洞，花开洞，洗心台，水声洞，玉流洞，白莲峰，梦踏亭共九处名胜。在城内东边有松洞和夹润亭两处名胜，城内南山脚下有双桧亭和泉雨阁两处名胜。



景福宫周边地区的仁王山脚下有弼云台、洗心台、水声洞、玉流洞、北岳山脚地区的道化洞、幽兰洞、白莲峰、昌德宫西边的花开洞、梦踏亭等名胜，仁王山脚下的名胜占了很大的比重。在都城外的东北侧有位于惠化门外的北寺洞和位于南山外麓的山丹，西北侧有位于彰义门外的洗剑亭，西侧有位于敦化门外的天然亭。在汉江附近有挹清楼和苍桧亭。

在《新增东国舆地胜览》中未曾受到重视的这些地方，被大量地收录进名胜这个篇章之中，但在朝鲜前期，有些被记录为名胜的地方并没有出现在这部作品之中。例如，像南山这部分，也提到了南山八咏是以南山为主题的八景诗。但是，在《汉京识略》中记录的南山地区的名胜，就算城内和城外的名胜加起来也不过三处。

汉阳北村这个地区，有很多与壮洞的安东金门相关的事迹。19世纪，这个家族是一个颇负盛名的名门望族。此处有与金门交情颇深的18世纪李秉渊的诗和郑敦的画作相关的内容，是一处在首尔地区具有代表性的名胜。

但是，这本书里面提到的这些名胜地，有些并不是那个时期人尽皆知的地方。例如，对于在《汉京识略》中收录为名胜的水声洞，有以下的评价。

水声洞位于仁王山的山脚处。深邃的幽谷，这里还有泉水和岩石，是一个十分适合夏季游玩的地方。这个洞据说是匪懈堂的旧址。有一条桥，名为麒麟桥。

这个地方现在是楼上洞和玉仁洞的交界，这个地方曾建有玉仁示范公寓。2012年，对此处的公寓进行了拆迁，以麒麟桥为中心，对溪谷的景观进行了复原，还原了以前的面貌。我们看到这张照片里的石桥就是麒麟桥。在景观复原后，有一块景区介绍的指示牌，在上面介绍了谦斋郑敦的画作，引用了《汉京识略》的记载内容，由此可见这部作品的重要性。

但是除了以壮洞的安东金门为代表的人物之外，19世纪以前很少有作品把此处记载为游览景点。水声洞，清风溪，晴晖阁等地方，是因为18世纪老论派的壮洞金门而闻名的场所。正祖时期，这些学派的学者们在国都八景诗吟咏方面有所建树，所以其地位有所上升。不知道是不是因为带有这种主观性，在内容上也可以看出其对不同学派的态度有所差异。



上节课我们学习了姜浚钦这个南人派学者吟咏汉阳风景名胜的相关内容。他生活的时期与柳本艺相近，留下了吟咏汉阳多处名胜的《汉京杂咏》这部作品。大概吟咏了四十处名胜，姜浚钦提及的这些地方，在《汉京识略》里虽然被分散在不同的篇章之中。

但是，在《汉京识略》的名胜篇章中，这些与壮洞金门有着密切关系的场所，在姜浚钦的诗里一处也没有提及。由此可见，即使生活在同一时代的人物，因为支持的学派不同，所以交友圈也有所不同，对于场所的偏好和评价也有所不同。

最后我们有必要来看看，在柳本艺心目中的名胜到底是怎样的地方。《汉京识略》中的名胜，不仅仅是地标性的场所，而且是与名人或其他人事迹相关的场所。而都城内的有名景观或建筑被分散在不同篇章中进行了记叙。在这些有名的景观之中，被柳本艺选为“名胜”的地方，是与人们事迹相关的地方。

例如，照片里的弼云台留有鳌城李恒福的足迹，此处有很多的花草树木，春天来临时，很多人来此赏花，此处人头涌涌。间巷人们也会拿着酒到此处吟诗作对，场面一度十分喧哗，这样子创作出来的诗被称为“弼云台风月”。在《汉京识略》中的名胜，不仅仅是风景优美的地方，而是留有人们的历史足迹，人们在这里曾有过故事，具有文化底蕴的地方。

而且描写的内容还具有季节性。春天，如谦斋郑敦的这幅画所示，在弼云台或洗心台赏花，晚春在北寺洞赏桃花。端午时节在山丹观看摔跤，盛夏在天然亭观赏荷花，在水声洞的山谷戏水。还有，秋天在双桧亭观赏枫叶。通着这项记叙内容，我们大体可以想象19世纪的人们是如何在汉阳寻找每个季节适合游玩的场所。

上面我们学习了柳本艺笔下的名胜相关的内容。他笔下的与朝鲜前期的名胜有很大的不同，大部分位于景福宫周边地区。所谓名胜，并不仅仅是风景优美的地方，而是有很多名人曾留下足迹和具备民间文化底蕴的地方。由此可见，与柳本艺的家有着深厚交情的壮洞金门，与这个家族相关的地点在作品中的内容占比较大。

这节课我们学习了，首尔哪些地方是柳本艺认为的名胜，以及这些名胜具有怎样的特征。在下节课，我们将一起来探究一下，叙述了在首尔伟人留下的足迹的各洞篇章。



8-4 遍布伟人足迹的首尔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首尔哪些地方是柳本艺认为的名胜，以及这些名胜具有怎样的特征。

他认为所谓名胜，并不仅仅是风景优美的地方，而是有很多名人曾留下足迹和具备民间文化底蕴的地方。而且与壮洞金门相关的地方，在作品中的内容占比较大。这部作品对于都城内的游玩地方进行了详细的介绍，与朝鲜前期名胜大部分位于都城外的情况有所不同。

这节课，我们将一起来探究一下，叙述了在首尔伟人留下的足迹的各洞篇章。

各洞这个篇章，是指各地方的洞，介绍了位于汉阳的洞。这一个篇章，也是像名胜一样，是只有在《汉阳识略》里才有的篇章。对于我们来说，“洞”是一个十分熟悉的行政区域单位。但是，在朝鲜时期，“洞”还不是一个正式的行政单位。

汉城府主要分为五部，即中部，东部，西部，南部和北部，下面有50多个坊。例如在中部由贞善坊、庆幸坊、宽仁坊、寿进坊等坊构成。但是，不知从何时起，人们就将首尔地区的街道称为“洞”。

像这样把人们在不知不觉间开始使用的惯用称呼，用单独的篇章进行说明。由此可见，各洞篇章体现了作者对首尔细致入微的观察，包含了许多细节信息。这个篇章的特征是在内容中加入了十分多的个人见闻和野史，从另一个角度来看，这个篇章也可以说是这部作品的精华内容。

在各洞篇章的第一部分，作者首先解释了“洞”这个词的由来，因为是习惯性的称呼，所以大家会很好奇这个词语的由来吧？

作者先从字面意思上进行了推测，“洞”是代表洞穴的意思，好像这种可能性不大。所以又提出了一个观点，“在中国，街道被称为“胡洞”，街道使用“衙”字进行标识，也许此处的“洞”是来自于中国。所以，在篇章名称的下面有这样的注释，篇章的名称与街道的“街”字意思相同。



这个篇章有约70个项目，有对于多个洞的说明。没有进行分门别类，而是直接进行了罗列。我们来看一下顺序，从中部开始，按照“东部-南部-西部-北部”的顺时针顺序进行了叙述，最后叙述了城外地区的各洞。在这70个左右的项目之中，有三分之二的地方都是名人曾留下事迹的地方。例如，像中部地区，总共收录了5个洞名，而其中没有人物故事的地方，只有内农圃一个地方。

东部记录得五个洞名，全部都和名人有关。其他地方都是与名人有关的，而弘德田则是一处有关孝宗和內人弘德传说的地方。当孝宗在沈阳的时候，內人弘德被抓为战俘，据说他腌泡菜腌得很好，所以也上贡了泡菜。

孝宗登基后，弘德也在速战速决后很快地回到了韩国，再次制作了泡菜，通过宫女进行进攻。孝宗认出了这个味道，作为奖励赏赐给他了数亩的田地。而这片田地也得名弘德田。所以这个洞的名字是以“田”作为结尾的。

在南部地区，作品里介绍的洞的数量是最多的。一共有26个洞，除了扈卫厅洞，小公洞，冶岾，草田洞，竹田洞，东岾，披兰洞之外，其他的洞都有记录人物事迹相关的内容。小公洞以前是南别宫的所在地，这个地方原来是太宗的公主府，所以此处应该也是一个有人物故事的地方。

在西部的6个洞之中，除了贞洞之外，其他地方都有相关的人物故事。贞洞这个名字，来源于建国初期的贞陵，贞陵是太祖妃神德王后姜氏的陵墓，所以此处应该也是一个有人物故事的地方。这样看来的话，西部所有的洞都有人物故事。

在北部11个洞之中，除了八判洞和楼阁洞，所有的洞都有名人相关的故事。其中，对于八判洞的描述是，间巷人们生活在这里，士大夫不住在这里，也反映了作者具有明显的身份差异意识的这个特征。

在城外许多的洞也是相似的情况。在16个洞之中，除了旺深里和雇马厅洞，全部地方都有人物相关的事迹。所以，在各洞这个篇章，大部分的地方都是与名人事迹有密切关系的。由此可见，在汉阳这个地方处处都是历代贤士留下的足迹。

我们来看看具体的叙述内容示例。在各项目中，首先说明了大概的位置或名称的由来，然后再说明了和那个地方相关的名人事迹。我们接下来看看寿进洞这个例子。





“寿进洞被美称为洞，此处设有牧隐和李穡的灵堂，所以每年都有子孙后代和儒生前来祭祀。寿进洞的名称来源于寿进坊，这里说的牧隐和李穡的灵堂也一直保存至今。旁边的李穡肖像画，正是一幅收藏于牧隐灵堂的作品。像每年都有子孙后代和儒生前来牧隐灵堂祭祀这件事，如果柳本艺不是土生土长的首尔人，是绝对不可能知道这些见闻的。

由此可知，在各洞的篇章反映了作者的所见所闻。在寿进洞项目的批注中记录了，有郑道传的旧居位于此的民间传说。“在民间有这样的传说，郑道传的家位于寿进坊，现在这个地方被用作宗学书院，现在没有济用监，被用作司仆寺的马厩。作品里有这样的记载内容，“郑道传很会看地方，将此处建设为可以养数千匹马的场所。”

这种描写不仅仅是简单描写郑道传的家位于何处，还描写了书院的位置，里屋的位置等十分具体细致的内容。郑道传很会看地方，将此处建设为可以养数千匹马的场所，是司仆寺日后管理和饲养马匹的场所，这个传闻也一直流传至今。

还有以下这种可以反映其个人见闻的故事。

会贤洞位于南山脚下，其被美称为洞。此处有文翼公郑光弼的旧居，他的子孙后代也居住于此。神算子说门前银杏树上将会挂有12条犀带，郑氏一族已经出了多位丞相，人们说还有剩余的犀带。并且，阳坡郑太和的旧居也位于此洞。以前在这里建了一间舍廊房，即使兄弟晋升为了丞相，他们仍然一起居住于此，也不觉得空间小。并且，里屋是清阴金尙宪出生的地方。人们至今也不敢改变此处的旧貌。并且，一蠹郑汝昌（1450-1504）的旧居也位于此洞内。郑汝昌的子孙后代每年都会来此向住客收取家代税。

犀带是丞相佩戴的冠带。郑光弼的旧居悬挂着12条犀带，所以也有预言说未来会有12名丞相出自于此。不知道是不是这个原因，是有很多丞相出自于此，但还没有达到12人。这种坊间的说法也渐渐流传开来。

郑太和两兄弟即使都当上了丞相，还是选择住在这个小屋里，里屋是外孙金尙宪出生的地方，像这种传闻内容，如果不是对这个地方了如指掌的人，是不可能知道的。而其后代子孙把这个房子租给了别人，并收取租金，这也是如果不是首尔人也无法知道这种坊间传闻内容。



并且从对于金尚宪出生地方的描写这一点可以看出，作者对于金尚宪抱有尊敬之情。就像名胜项目中壮洞金门相关的内容占比很大一样，在各洞项目中也出现了壮洞金门相关的内容，叙述的语气体现了其敬畏之情。

就像多个篇章都提到了柳本艺喜爱的奎章阁一样，壮洞金门的事迹也在多个项目中有所叙述。例如，壮义洞的清风溪是金尚容的旧居，在壮义洞这个项目中已经有所叙述，但是在太古亭这个项目中又提到了壮义洞的亭子和寺庙。此处提到那里刻有“大明日月 百世清风”的文字，现在的刻字就仅存“百世清风”这四个字了。

在各洞的篇章中，内容占比最大的是报恩缎洞。这个地方俗称美庄洞，此处引用了很长的“通文馆志”的内容。这是关于译官洪纯彦的故事。

壬辰倭乱前的某天，此人偷偷地跑去了妓院，后来在此交往了一名失去双亲，为了筹集葬礼的费用而出卖身的女子。听说了这名女性身世故事的洪纯彦，并没有把她当作一个普通女子对待，而是把自己全部的钱都给了她去办葬礼，可以看出他是一个十分讲义气的人。但是这名女子后来成为了礼部侍郎石星的后妻，但她把这段经历告知丈夫的时候，她的丈夫备受感动。

在那之后，洪纯彦作为译官到明国时，在解决朝鲜的多个外交问题上，石星都给了不少帮助。特别是壬辰倭乱前时期，石星作为兵部尚书，在向朝鲜派出援军这件事情上做出了很大的贡献。据说此女子向洪纯彦赠送了装有10匹五彩绸缎的螺钿作为礼物，在绸缎的末端刺有“报恩”两个字，这也是报恩缎洞这个名字的由来。

这个故事不仅仅是在《汉京识略》中有所记载，在以《燃藜室记述》为代表的书籍中也都有所记载。这说明那个时期的人们很喜欢这个故事。那个时期差点因为壬辰倭乱而灭亡，有了明朝的帮助才得以维持国家，所以对明朝要守住义气的《对明义理论》的叙事仍受到广泛的欢迎。

据《汉京识略》的昌德宫篇记载，大报坛是举行明朝皇帝祭祀的场所。在寺庙篇，为了祭祀壬辰倭乱时期，死去的明朝将帅和军人的愍忠壇和宣武祠，壬辰倭乱中明朝将帅要求建造的东关王庙，像南关王庙一样，与明朝或壬辰倭乱相关将帅的场所，都被收录于此篇章。



在各洞篇章约70个项目之中，对于其中三分之二的洞，都对居住在该地方的人的身份进行了介绍，还有这个人留下了怎样的遗迹，然后这个地方有什么故事，对于这些内容都一一地进行了说明。作者自己的家也在校书馆洞。

从前这个地方有印书馆，也被称为芸洞。这里也是将军林庆业的旧居，芸馆的府君堂神像就是林将军。以前正祖时期，我们家曾在此处住了很长一段时间，所以将父亲的堂号取名为古芸。

林庆业是一位在朝鲜后期坚守使命的代表人物，备受后人的尊敬。在丁卯胡乱和丙子胡乱时期，武将林庆业在丙子胡乱中战败，败给了清军。即使到即将被处刑的最后一刻，仍然想要帮助明朝，光复中原。特别是在肃宗时期，对于林庆业这个人物的重新评价也越来越多。

就像叙述内容中体现的那样，作者认为自己和那多在首尔留下足迹的伟人生活在同一个地方，是一件十分值得自豪的事情，而在对于这位林庆业的旧居的叙述内容中，也体现了这种感情。并且，作品中还出现了担任这本书出版工作的校书馆和自己家位于同一个街道，父亲的号源于此处等叙述内容。由此展现出了历任检书官的自己家族，与自己现在担任奎章阁检书官之间有这样的历史必然性。

这节课我们一起探究了作为《汉京识略》中最具有特色的篇章之一的各洞篇章。柳本艺认为作为伟人曾留下足迹的地方，首尔具有特别的意义，作为当代首都，在思想上和文化上都优于其他地区。

但是对于柳本艺而言，那时的首尔并不只是一个庄严且有伟人留下足迹的地方。虽然首尔当时也是十分繁华，灯红酒绿的城市，但在《汉京识略》中却没有展现出这一面。

下节课，我们将把《汉京识略》和《汉阳歌》两部作品进行比较，并且将进一步分析《汉京识略》所具有的特征。



8-5

在《汉京识略》和《汉阳歌》中展现出的不同的汉阳面貌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汉京识略》中的各洞篇章，这也是这部作品最具特色的篇章之一。这个篇章中记叙了很多人物的事迹，对于作者的见闻和具体的信息十分详细地进行了记录。

这节课我们将把《汉京识略》和《汉阳歌》两部作品进行比较，并且将进一步分析《汉京识略》所具有的特征。

在柳本艺撰写《汉京识略》的19世纪，还有另外一部以汉阳为主题的作品也广为流传。这部作品名为《汉阳歌》，是一部韩语歌词作品，我们来比较看看这两部在相近时期描绘汉阳的作品。

《汉阳歌》，是汉山居士创作的一部韩语歌词作品。虽然无法准确地得知汉山居士是何人。据推测，其出身于掖庭署别监。掖庭署是掌管宫内杂事的机构，在歌词中有对于别监的外观或娱乐活动的描写。有人推测其因为出身于掖庭署别监，所以取名为汉山居士，来创作这首歌词作品。

《汉阳歌》是每行有4音步，总共有704行的长篇歌词作品。画面左侧是手抄的版本，右侧是木版的版本。两部作品都有提到“开天辟地，日月浮现。星辰光辉，五行出现。”，是从开天辟地时期开始记叙的。

我简单地做了一张表，我们一起来看看《汉京识略》和《汉阳歌》这两部作品的共同点和差异点。首先，《汉京识略》大概是在1830年~1842年期间创作的作品，而《汉阳歌》据推测是1844年创作的作品，所以两部作品描写的都是相近时期的汉阳。就像《汉京识略》抄写本与册佺宋申用和嘉蓝李秉岐有关一样，《汉阳歌》也是由册佺宋申用出版的译注本，很快就得到了普及。而且，还有嘉蓝李秉岐也为此写了论文这个共同点。

《汉京识略》的作者柳本艺曾担任奎章阁检书官，出身于庶子之家，有着士大夫的自我意识。《汉阳歌》的作者，据推测，其出身于掖庭署别监，这个阶层还不足以称之为士大夫。两者的身份虽然不同，但都是担任宫内的官职，有这一个共同点。

《汉京识略》是一部汉文散文作品，《汉阳歌》是一部韩文韵文作品。这种体裁上的差异，造成了两部作品在大众性上也有很大的区别。《汉京识略》只有4、5个手抄版被流传下来，但是没有19世纪当代抄写的版本。至少有2个版本确定是在20世纪后进行抄写的。



与此不同,《汉阳歌》有木版本和手抄本广为流传,木版本是在1880年发行的,而基于此也制作了许多不同的版本。《汉阳歌》虽然不是在全国范围内发行的,但是在民间颇有人气,许多业者都有参与作品的传播。

可能是两位作者都在宫内任职,进出官厅,所以在两部作品中,都出现了很多关于宫阙和官厅的内容描述。在《汉京识略》中,几乎有一半的内容是描写宫内外的官署,《汉阳歌》也是如此。但是,即使描写相同的宫阙和官厅,但是两部作品关注的焦点不同。我们先看看《汉阳歌》的一个选段。

健壮的武艺厅军人,身着紫红色军服,头戴蓝色肩带,精通十八般武艺,气势很勇猛。到了晚上,有头戴虎皮头巾,身着虎皮军服,手持三角棍的人坐镇守卫,这些都是守护君主的军人。身姿轻盈的掖庭署别监正值花样年华,意气风发。身着堂堂红衣,头戴紫色头巾,胸间绑着蓝色的粗腰带,充满光泽的纯金发髻呈仰面向上的角度,插得十分漂亮……各处所的宫女负责宫内事物,有人守卫内殿寝室,生果房,烧厨房都交由官厅来掌管,从早到晚都有人出入,有负责针线活儿的人来询问衣带的尺寸,也有人来奉上御膳……上了年纪的婢女,身着长长的韩褂,在黛蓝色的无名腰带上挂着门牌。各宫的老子(从)模样一般是头戴宽纱帽带的帽子,身着带有深蓝色袖子的长袍。内兵曹守着军师的门,手持皮鞭,以警示闲人免进,他们在不停地巡视,展现出威严的气势。

在《汉阳歌》中,不仅对武艺厅的军人,掖庭署别监,宫女,还对婢女和进出宫内的随从等人,都进行了细致的描写。随从戴着帽子,身着深蓝色的长袖马甲,针对其着装打扮的样子,也进行了长篇描写。

在宫内工作的文臣,只对承政院的承旨进行了详细地说明,但对于弘文馆,内阁的阁臣,春秋馆的翰林等官职只提及了名字,没有进一步地介绍。而在《汉京识略》中,对于承政院,弘文馆,春秋馆等文化机构,主要叙述了像大厅或宾厅这种文官经常出入的地方。而奎章阁就像昌德宫篇章的主角一样,作品中收录了很多与之相关的故事。正祖时期的故事,殿阁的结构,甚至是像井水的味道这种反映周边环境的描述内容都收录在了这部作品里。

由此可知,在《汉京识略》里,对于检书官相关的空间做出了十分详细的描写,但是在《汉阳歌》这部作品里,并没有提及检书官这个角色。由此可知,对于奎章阁检书官的相关信息和内容,大部分是基于柳本艺个人的经验和位置进行描写的。



而且，在《汉京识略》里，并没有提及宫女或婢女这种在宫内工作的女性。从这点可以看出，像柳本艺这种精英阶层的人士，有意与宫内工作的女性保持距离。越是身居较高的阶层，男女互不相视的观念就越根深蒂固。

对于同样一个空间，两位作者关心的重点也各有不同。最具代表性的场所是玉流洞和松石园。两个地方都位于仁王山脚下，相距的位置非常近，从石壁缝隙中流出的水，营造出了绝美的景致，所以这里成为了非常有名的名胜。

玉流洞是安东金门金昌协家里的晴晖园，在松石园里有18世纪平民诗人千寿庆主导设立的松石园诗社。这个诗社不仅反映了那个时期中人层的生活状态，还有他们取得的文化成就，也因此而闻名于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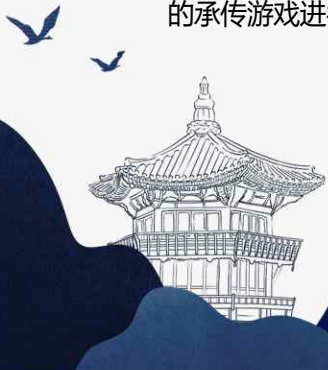
最有趣的一点是，虽然《汉京识略》的作者柳本艺生活的时期与松石园诗社设立的时期相同，但在这部作品中却完全没有提及松石园。在这部作品中只叙述了玉流洞和晴晖阁。在《汉阳歌》中，既没有出现金昌协的名字，也没有出现千寿庆的诗词，可以看出作者对于这种文化艺术类的内容并不那么感兴趣。但是两部作品都提到了，玉流洞和松石园是适合游玩的地方，说明两人都已经知道到了松石园这个地方。

18世纪的画家金弘道和李寅文都留有以松石园诗会为主题的画作。由此可见，在松石园举办的这种集会在当时十分有名。应该柳本艺也知道这个信息。但是在《汉京识略》中却没有提及。

在《汉阳歌》中，以松石园这个名字出现，并没有对诗会进行进一步描写，只提到这是一处很适合游玩的地方。由此可知，尽管柳本艺和汉山居士生活的时期相同，但是他们所关注的汉阳地区却有所差异。而以松石园诗会为主题作画的金弘道和李寅文的关注重点，有可能也和他们两人有所不同。

金弘道的《松石园诗社夜宴图》是受到金义铉的委托而创作的作品，金义铉不仅参与了诗社工作，还是奎章阁的官员。而金弘道的画作是以松石园诗社的当事人的视角进行创作的。通过这些与松石园相关的内容，我们而可以知道，即使生活在同一时期，但对于同一场所，创作者的认知可能也会有所不同。

在不同作品中，对于娱乐活动的描写也有所差异。在《汉京识略》中，大部分都是针对赏花和诗会这类活动的描写内容。如果说更平民化一点的娱乐活动，那就是山丹的摔跤。而在《汉阳歌》中，对于别监们喜欢的承传游戏进行了详细地描写。





这种承传游戏一般会在北一营的君子亭进行。精心打扮的别监搭起凉棚，把灯挑亮，把各色器具放置于此，还会叫来乐师和艺妓，这个游戏大体是这样进行的。对于这部分内容进行了长篇的叙述，不仅体现出了《汉阳歌》的叙述特征，还提供了可以推测作者身份的线索。

在《汉京识略》中，只记录了和君子亭相关的内容，这是一处射箭的亭子，以及有赵显命题写的匾额。从这部分可以看出两部作品记录内容的差异性。

而对于市廛的详细描写，《汉阳歌》这部作品具有压倒性的优势。在《汉京识略》中，只是简单地介绍了绵廛，绵紬廛，布廛，纸廛，鱼物廛等市廛的名称，以及店铺里售卖的东西。例如，绵廛这个店铺，即被称为“绵廛”，也被称为“立廛”因为当时是站着售卖货品，所以该场所因此得名。售卖来自中国的绸缎。”类似这种叙述。在介绍了六矣廛下属的市廛之后，仅仅补充了下面的内容，“上述各市廛全部都位于钟街，所以也被称为六矣廛。而矣在民间也被称为注比。”。

《汉阳歌》对于六矣廛的叙述，从开头部分开始就十分生动。“穿过大的广通桥，六注比廛位于此。来此工作的捐客和拥有货物的市廛商人们，穿着大的衬袍，戴着纱帽，在衬袍内穿有贴身衣物，在讨价还价。”人声鼎沸的集市场面被一五一十地生动还原。

在《汉京识略》中有这样的注释：这里叫做六矣廛，在民间被称为“六注比廛”。而在《汉阳歌》中，则直接将此处称为“六注比廛”。

由此可见，这两部作品虽然都是在19世纪上旬进行撰写的，但是两者眼中的汉阳有所不同。在《汉阳歌》中，赞扬了都市的繁华和华丽的一面，从最下层开始，到婢女，宫女，商人，风月场的女子，閭巷百姓，士大夫等阶层，都逐一进行了描写，体现了丰富多彩的汉阳生活。

而在《汉京识略》中，像各洞篇章的内容一样，记录了伟人的事迹，只描写了一小部分阶层的生活。从受欢迎的程度来看，《汉阳歌》这部作品具有明显的优势。从1880年开始，这部作品就开始被不同的业者以木版的形式进行出版。

我们再看看《汉京识略》这部作品，柳本艺希望如果新编《新增东国輿地胜览》作品的话，可以把《汉京识略》作为参考资料。但在20世纪之前，柳本艺的愿望都未能看到实现的曙光。但是，通过这部与同时期作品具有差异性的作品，我们感受到了19世纪汉阳精彩的生活，并且能更全面地理解当时的情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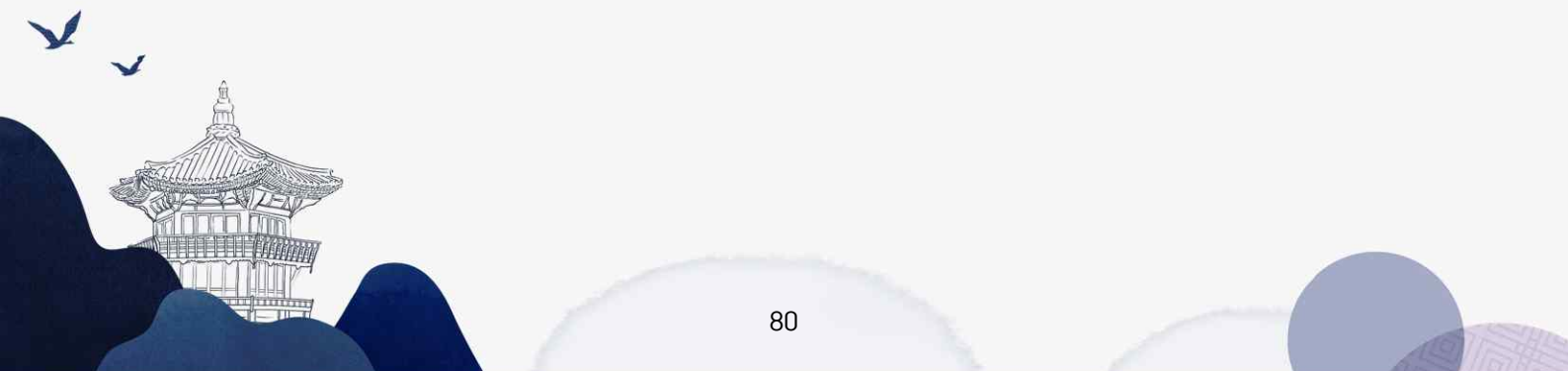


这节课我们学习了《汉京识略》的具体内容，以及这部作品具有的特征。这种信息的详细程度是只有身为汉阳人的柳本艺才能写的出来的，在其他资料中几乎没有如此细致入微的介绍。这本书是还原19世纪汉阳风貌的重要参考资料。通过《汉京识略》与同一时期的作品《汉阳歌》的对比，可以知道《汉京识略》也仅仅只是展现出了那个时期的汉阳的部分风貌。

19世纪的汉阳，是我们所知道的汉阳在朝鲜时期最后的风貌。因为近现代急剧的变化，所以很难确认前人留下的足迹和信息，如果没有《汉京识略》这部作品作为参考资料的话，那我们的研究会更加迷失方向。

尽管这部作品后来没有成为《新增东国舆地胜览》续集撰写的参考资料，但其对于现在的研究者而言，在研究首尔的场所性方面，可以作为基础性的参考资料。从这点来看，柳本艺的愿望在三个世纪后得以实现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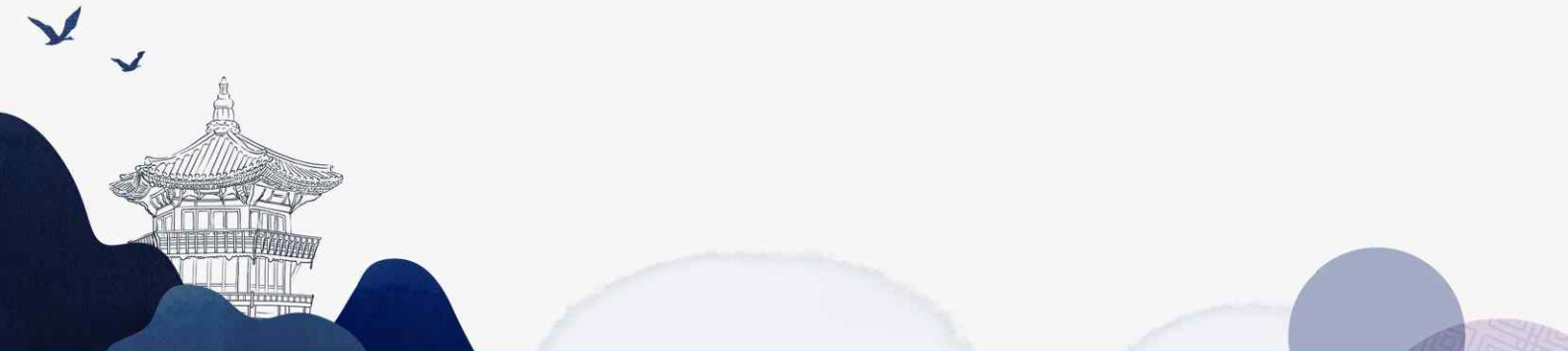
关于《汉京识略》的课程内容就到此结束了。谢谢。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 중 《한경지략》에서 서술한 규장각 관련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5분

- ①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고금도서집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② 시문은 수록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규장각의 측우기와 종경가에 대한 글도 실지 않았다.
- ③ 규장각 소유재는 검서관이 숙직했던 곳으로 정조대 이곳을 지은 내력을 서술하였다.
- ④ 규장각에서 기르던 학 1쌍에 대해 서술하며 그 사료가 이문원 주방에 있다고 서술하였다.

정답 ②

해설 시문을 수록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시문을 배제하였으나 규장각의 측우기와 종경가에 대한 글은 실었다. 이 점에서 규장각에 대해 특별히 자세하게 기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02 다음 중 한경지략의 명승 항목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5분

- ① 명승 편목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한경지략》에 모두 있는 편목이다.
- ② 명승 편목은 각동 편목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많다.
- ③ 《한경지략》의 명승은 성밖과 성안으로 나누어볼 때 성안의 비중이 크다.
- ④ 《한경지략》에 수록된 필운대, 유란동, 청풍계 등은 장동 김문의 사적과 관련이 깊다.

정답 ①

해설 명승 편목은 각동 편목과 함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없고 《한경지략》에만 있는 편목이다.



03 다음 중 《한경지략》과 《한양가》에 대한 서술로 틀리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5분

- ① 《한경지략》 - 궁궐 안을 서술할 때 문한기관이나 문관이 드나드는 곳을 중심으로 서술했으며, 궁궐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 ② 《한경지략》 - 18세기 평민 시인인 천수경 등이 주도한 송석원시사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 ③ 《한양가》 - 저자인 한산거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액정서 별감 출신으로 추정한다.
- ④ 《한양가》 - 목판본으로만 전해지는 한글로 된 가사체 작품으로, 4음보를 1행으로 잡을 때 700행이 넘는다.

정답 ④

해설 《한양가》는 필사본과 목판본 모두 전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주제

《한경지략》은 16세기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바뀐 새로운 한양 관련 정보를 모으로 당대 저자의 견문을 함께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한양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이다. 이 때문에 서울 안에 위치한 여러 지역 명소를 개발할 때 이 책을 기본 도서로 활용하고 있다. 수성동계곡의 복원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저자가 당대의 정보 모두를 수합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친분이나 당색, 신분 등에 따라 편중된 정보를 수록하였다는 한계도 있다. 그렇다면 향후 이 자료를 활용할 때 우리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6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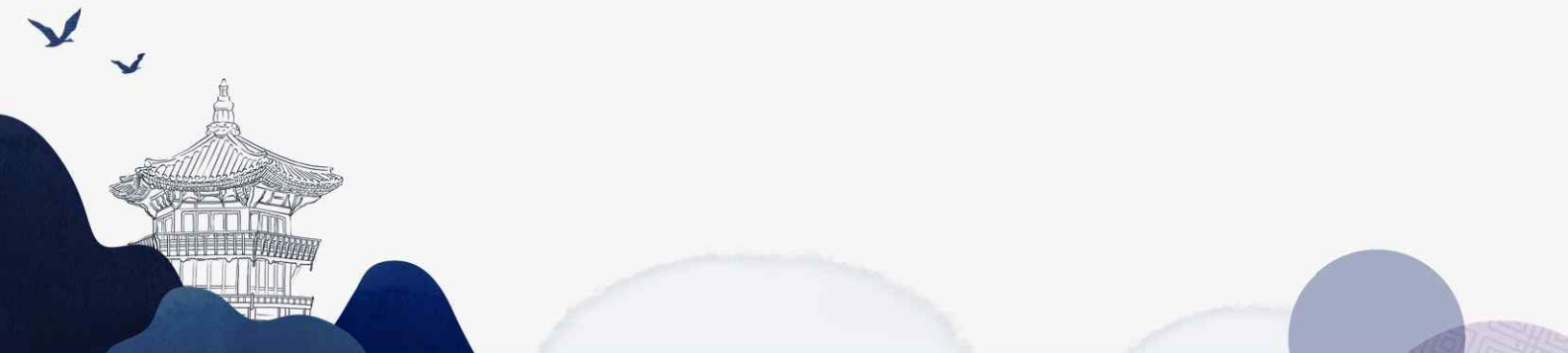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참고

조선시대 한양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책이 생각보다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으며, 시기적으로도 16세기와 19세기로 일부 시기에 편중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경지략》은 19세기 당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가 개인이 편찬한 만큼 정보를 수집하는 데 편향되어 있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책이 공개되고 활용된 20세기에도 이 책의 편향성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것을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 전체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향후에는 서울의 여러 장소 중 조선시대의 유명 장소로 이미 부각된 곳들의 경우에도 정말로 당대에 그러한 위상과 의미를 대중적으로 지닌 곳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장소 외에도 조선시대 다른 신분과 계층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장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지리지 외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러한 장소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등을 바탕으로 사료의 비판적 활용법에 대하여 나름의 방법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유본예 저, 장지연 역, 2020 《한경지략- 19세기 서울의 풍경과 풍속》 아카넷

유본예가 저술한 《한경지략》의 역주본으로 직접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며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저자의 서술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옛 한성의 여러 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2~2014 《국역 경성부사》 1, 2, 3

1934년, 1936년, 1941년 경성부에서 편찬한 《경성부사》를 번역한 책으로, 일제시기 변화된 서울의 모습을 《한경지략》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최완수, 2018 《겸재의 한양 진경》 현암사

겸재 정선은 《한경지략》에서 명승으로 꼽고 있는 장동, 백악, 인왕산 일대를 그린 그림을 많이 남겼는데, 이 책에서는 이 그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선의 그림과 《한경지략》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맞추어 읽어보면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이 약간이나마 그려질 것입니다.